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人 方應謨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蔣氏態度如何로는 日中正面衝突難免

排日派廣西派와呼應하야暗躍

國府一大政變에直面

日中交涉完全停頓

【南京廿四日發同盟】日中交涉은 昨日 川越大使 張群外交部長의 第三次會談으로 完全히 暗礁에 逢着하야 中國側이 그態度를 一變치안는 限 局面打開는 不可能하게되엿스나 川越大使는 只今 暫時南京에 滯在하야 蔣介石氏의 最後的 態度를 打診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國民政府及 黨部方面의 排日派는이 機會를타서 自派勢力의 擴張을 圖謀하려고 頻繁히 暗躍을開始하야 日本의 要求承認은 中國을 亡國化하는것임으로 如斯한 國際外交는 絶對排擊하라고하야 廣西派와 相互呼應하야 蔣介石氏를 牽制하고잇다 이로因하야 外交部長 張群氏等 對日交涉의 折衝에當한者는 苦境에서서 實權者인 蔣介石氏가 此機會에 責任廻避의 不明瞭한態度와 併行하야 非常한 態度를繼續하면 行政院首腦部는 總辭職의 不得已한 情勢에 이를지도몰른다 그리고 蔣介石氏가 依然南京歸任을 遷延시키여 急迫한 事態收拾에當할 決意를 示치안는 以上 日本과正面衝突을 惹起하야 日中交涉에 多大한支障을 줄것은勿論 內政方面에도 또蔣介石內閣의 日本系分子의 總退却이되고 一大政變에 直面할것은必至로 此數日間의 蔣介石氏의態度는 가장 注目된다 (寫眞은 蔣介石氏)

外相首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二十五日午前九時五十分 閣議開會에앞서 廣田首相과會見 二十四日對中問題에關한 三相會議의經過及 結果를報告하고 다시今後對中方策에對하야 各種協議를遂하엿다

米國第四陸戰隊 上海에서待機姿勢

【上海二十五日發同盟】事態急迫에 鑑하야 上海駐屯의 米國第四陸戰隊兵力의 外出을 一切禁止하야 市中外出도 行先을 明示하라고 司令官으로부터 二十四日附命令이 發令되여 待機의 姿勢를 取하얏다

米軍艦續續 上海로集中

【上海廿五日發同盟】米國海軍東洋艦隊司令長官 머피少將은 旗艦 오거스타號에 座乘 驅逐母艦 블랙 外驅逐艦十隻을 引率하고 北中國海를 游弋中이엇는데 上海方面의 風雲이 急을 告하게되여 豫定을 變更하야 十月一日上海에 到着할 豫定인데 潛水戰隊七隻 水雷戰隊四隻도 이外續續하야 十月上旬 南下하기로 決定하얏다고 傳하며 米國軍艦은續續上海에 集中하고잇다

日中國交內面事情 有田外相說明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二十四日午後 政友會代表로부터强硬한 決意를바덧는데 對하야日中國交의內面的事情을 說明하고 日本外交의 進路에對하야 如左한 意味의說明을하엿다

今回上海의 陸戰隊員狙擊事件은 成都、北海等地事件에比하야 매우 惡性이여서 日本으로서는 이善後對策에 對하야 萬遺憾없음을 期할과 同時에 日本의 威信을 十分發揚하는 決心이다 그러나 日中兩國間의 國交를 阻害하는 이種類의 不祥事를 根絶함에는 排日侮日行爲의 根本的芟除를必要로할것인데 國民政府의 反省에 基하야 兩國國交를 全面的으로 調整하지아니하면아니되겟다고 밋는다 日本外交의根本精神은 何等變更을 밧지안는다 따라서 在南京川越大使에 俄然 歸國을 命하는 事態에 이르리라고는 생각지안는다

國府誠意表示까지 自衛行動斷行

佐藤武官決意表明

【上海二十四日發同盟】抗日事件이 頻發하야 國民政府의誠意를 認定할수업는故로 川越大使에게 重要進言하고 二十四日午後六時半 飛行機로歸寧한 大使館附海軍武官 佐藤少將은 今夕에 如左히決意를 表明하엿다

國民政府와 正式交涉이 進行中 不祥事件이頻發하야 特히昨夜와가튼 重大事를 誘致케되엿슴으로 局面은 非常히困難케되엿다 따라서 甚히不誠意한國民政府를 相對로 交涉을締定할수업고 벌서 日本은自衛行動을斷行할 一途밧게업다고생각되는故로 今朝南京에飛한 川越大使에게交涉을中止하고 歸寧하기를進言하여왓다 卽國民政府가 根本的으로 反省하고 誠意잇는 態度로써 오

勃發은 北中要人에게도 多大한衝動을 與하엿다 北中에도 同樣事件이 勃發할 念慮가잇서서 居留民保護의 重責에잇는 田代駐屯軍司令官을 爲始하야 陸軍首腦部는 二十四日午後四時부터 萬一에備하는一方 重要對策의協議를凝議하엿다

天機御麗

【東京電話同盟】二十五日 午前十一時 海軍省發表 御召艦比叡는 今朝八時 艦位金華山沖 東經百四十八度 十五運 天候快晴 晝夜無風、海上平穩 聖上陛下 早朝御起床 天機麗御하압심을 拜承하다。

北中駐屯軍首腦 對策을協議

【北平二十四日發同盟】上海事件기까지는 日本側이 獨自的行動으로써 時局에 對處할手段밧게 道理가업다고 생각한다 國民政府도 今回는 愼重하는데 처 濃厚한模樣이나 依然不明瞭하고 不誠意한態度가 보인다

白頭山探險記

(64) 徐 椿

回路를빨리하야 京城驛에서解散

天池의 水深은 아직도 이것을 完全히 재인 분이 업다。或은 一千三百尺이라고 하며、或은 二千尺이라고하나 이것들은 다 極히 不完全한 測深法에 依한 局所的測定에 不過한 것이다。朝鮮日報社는 이것을 遺憾으로 생각하야 今番探險에 際하야 주크로 만든 보트一隻과 測深에 關한 諸般機械를 準備해가지고 갓섯스나、天池一泊의 中止로 因하야 測深計劃도 自然 中止되고 마럿다。

先頭가 望天峯에 到達하기는 約三十分만에 一行中의 末尾까지 와 다앗다。

萬歲三唱과 記念撮影이 끗난뒤에 警備隊는 赤色뻥키를 가지고 한 바위南側岩面에 野中、後藤等二十名의 姓名만을 記入하고、同北側岩面에는 三長署長志村豊彦殿이라고 써 노앗다。

우리는 그뻥크를 비려가지고 「朝鮮日報社探險團一行」이라는 文句를 바위에 써노앗다。執筆者는 第四班班長 金世鎔君이엇다。

方在胤君은 따로 붓을 드려서 그바로 右側에

徐 椿
方在胤

이라고 써 노앗다。

關門、宗德寺、大正峰、天王峰、天池五個所의 探查計劃을 抛棄하고 望天峯休憩約一時間後에 一行은 當日로 無頭峰으로 도라가기로 하고 八月十三日 午後零時半에 望天峯를 뒤로 두고 도라서서 나려가기를 始作햇다。回路는 나려오는 길이라 뿐아니라、風向이 逆이 아니요 順이기때문에 퍽 쉬웟다。望天峯로부터 無頭峰까지 約三時間에 到達햇다。이날 天池一泊을 中止햇기때문에 日程은 하로가 주럿다。

翌日 即 十四日에는 無頭峰서 三池淵까지 百里人길을 걸엇다。三池淵은 그이름과 가티 못이 세個가 잇는데 세個가 다 그周圍는 落葉樹의 密林으로 圍繞된것으로서 景致가 썩 조타。우리一行은 第二池에서 一泊하면서 天池에 띠우지 못한 주크製보트를 이곳에 띄워 보앗다。

警備員 入江氏가 單丸彈으로 水面에 안즌 오리(鴨)를 쏘아 一發에 命中시킨것은 一行의 感心話題가 되엇섯다。

十五日 아츰 三池淵서 記念撮影이 끗난後 午前十時에 胞胎里를 向해서 떠낫다。中途에 路面에 橫倒한 伐木이 만허서 문척 苦生햇다。사람보다 馱馬의 苦生은 如干이 아니엇다。

三池淵에서 約二十里 간곳에서 우리를 保護하기 爲해서 오는 咸南警備隊十五名을 맛냇다。우리 一行員과 咸北警備隊二十名은 咸南警備隊와 서로 人事를 마친後、記念으로 活動寫眞撮影을 햇다。

咸南警備隊一行十五名의 氏名은 如左하다。

今村 幹(惠山署) 隈田龍十(同) 中野虎市(同) 田中忠夫(同) 小山左京(同)

本田 時(滑淵駐在所) 伊藤長一(樺田駐) 吉田五郎(泉水駐) 海野文藏(同) 木口數馬(惠山鎭佳林駐) 木本興市(惠山鎭大坪駐) 妹尾寧一(同) 鴨原次作(惠山鎭獨山駐) 水越義忠(惠山鎭胞胎里駐) 茂田茂次(同)

午後五時頃에 白頭山出口胞胎里에 到着햇다。無頭峰서 胞胎里까지의 一百五十里는 亦是 落葉松의 深林地帶다。

胞胎里에 到着하면서 우리團員二十三名은 同地日新學校校庭에서 咸北二十名、咸南十五名의 警備員에 對하야 感謝及送別의 公式人事를 드리고、또醫師申盟雨、申龍均兩氏에게 對해서도 入山六日間의 勞에 對하야 感謝를 드리엇다。

胞胎里에서 一泊하는 동안에 同地駐在所는 우리에게 萬般으로 便宜를 도아주엇다。

十六日午前八時에 自動車로 胞胎里를 떠나서 午後零時半에 惠山鎭에 到着햇다。到着하면서 惠山鎭、長白兩地의 官民有志百餘名의 盛大한 歡迎을 바덧다。朝鮮日報社及團員一同을 代表하야 感謝를 드리는바다。同時에 本報惠山鎭支局長朱碌熙氏의 勞를 感謝한다。

惠山鎭서 一泊하고 十七日午前六時에 自動車로 떠나서 風頭里에至하야 이곳서 汽車로 吉州에 와서 咸鏡線에 乘換하고 車中에서 하로人밤을 지나서 翌十八日午前七時十五分에 京城驛에 到着하야 驛階上食堂에서 解散햇다。

八月十日 惠山鎭으로부터 同十五日 胞胎里까지 入山六日間에 우리는 多幸히 山中에서 비를 맛나지 안엇기때문에 無事히 단녀 왓다。

그러나 白頭山의 大雨、暴風、濃霧를 못 맛나엇기때문에 우리는 白頭山의 千變萬化의 무서운 光景을 充分히 못보고 온것은 一大遺憾이라고 할것이다。

다음 白頭山은 絶頂未踏最後의 十里를 除外하고 갈하면 全路程에 亘하야 過히 힘드리지 안코도 鐵道를 敷設할수가 잇다。더구나 自動車路나 만들려면 大端히 쉬울것이다。萬若 不遠한 將來에 이런 施設이 完成된다고하면 그때에는 白頭山은 國際公園이 될것이며、따라서 누구나 白頭山求景이 容易해 질것이다。그대신 勿論 探險價値는 훨신 주러 버릴것이다。

何如間、現在의 形便에 잇서서는 白頭山에 갓다와서의 最後의 感想은 무엇이냐? 하면 白頭山은 참 가기가 힘드는곳이나、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갓다 올 必要가 잇다는 생각이 난다。白頭山은說明을 듯는 것만으로는 모를데다。그야말로 百聞이 不如一見이다。보지 안허도 들어만 보아서 뜸뜸이 가는것이 잇지마는 白頭山만은 드려만가지고는 도모지 斷하할수가 업는곳이다。그러니까 直接 가서 볼 必要가 잇다는것이다。(完)

(寫眞은 胞胎里서 警備隊와 作別하는 光景)

知事會議(第二日)

南總督으로부터 統治大綱에對하야 重要訓示를바든 各道知事會議第二日은 二十五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開會 前日에繼續하야 各道의 管內狀況報告에들어가 土師慶南、上瀧慶北、美座平北、上內平南、鄭黃海、孫江原、湯村咸南、兒島咸北各知事로부터 順次 各地의 現狀을述하고 今後方針等에對하야 檢討를加하야 眞摯한報告가 잇섯다 會議는 午後四時까지 續行하야 新總督을마지하야 從來의統治重要政策에 다시 朝鮮滿洲依存의 深化及 治山治水確立의 二大使命을 너허서 二日에亘한 意義잇는 會議를 終了할터이다

外、陸、海出先 首腦部會議開催

【上海二十四日發同盟】今回事件에對한 現地首腦部會議는 二十四日 午前九時四十分 總領事邸에서 開催 外務側 若杉總領事 吉岡 福井兩書記官 寺崎領事 海軍側 岩村第三艦隊參謀長 上野海軍武官補佐官 大木 西田兩第三艦隊參謀 陸軍側 宇都宮少佐出席 各自로부터 報告情報를 交換한後 今後에 取할方針에對하야 現地로서의 態度를協議하고 協議終了를 기달려 中央部에 重大進言을 할터이다

人事·集會

△林財務局長은 來二十七日午後十時五分發列車로 渡東、東上中의 水田司計課長과함께 總督府 明年度豫算說明折衝에當할터이라한다

△小磯軍司令官은 大演習陪觀次 深堀參謀、江上副官을 帶同 二十六日午前三時十一分 龍山發列車로 北海道向發 來月十二日歸任할터이다

朝鮮의公課負擔 一戶平均八十圓

負擔能力有無가疑問

滿洲事件하는朝鮮大改革이 現內閣의重要政策의 하나로서 要請되는때 이에伴하야 朝鮮에도 相當한 程度의 政策實現를 不得已하게되여 日本內地도 外地를通하야 稅制改革問題는 자못 기픈 關心을 끌고잇는데 日本內地의 負擔은 엇더하며 朝鮮의 國民負擔額은 果然 어느程度로될는지 이를 總督府調査統計에依하면 大體一戶當平均負擔額 朝鮮八十圓 日本內地百三十三圓 臺灣五十四圓으로하게되엿다 (昭和九年度決算額)卽 朝鮮은 日本內地에 比하야 約六割에不過하나 國民經濟의 實力으로보면 負擔能力에 餘裕가 잇는지 업는지는 자못 疑問으로 大體 이程度가 飽和點이라고 觀測된다 負擔總額을 細別하면 左와如하다

▲朝鮮	
國費	一〇圓八一九
道費	五、〇五二
府費	三七、九七三
邑面費	三、八六七
學校費	〇、九三九
學校組合費	二、〇六〇
合計	八〇、七一〇
▲日本內地	
國費	五五、六七四
道府縣費	一八、〇〇五
市	三五、五六〇
町村	一四、二〇四
合計	一三三、四四三
▲臺灣	
國費	一八、五六九
州廳地方費	二一、二九七
市	一四、二八三
街庄費	九、一二〇
合計	五四、二六九

그리고 國稅負擔額은 昭和九年度決算에잇서서 八億四千三百十八萬三千四百九十六圓에對하야 朝鮮에는 五千六百十二萬九千二百四十六圓(當時는 稅制改正前으로 第二種所得稅는 無함) 臺灣은 千九百三十四萬七千八百五十六圓으로 總人에對한比率은 朝鮮 一九%三 日本三七%五 臺灣 一三%七에 該當하고 人口一人當 負擔額은 朝鮮二圓六十六錢 日本內地十二圓三十六錢 臺灣三圓七十二錢으로되엿다

海軍側과連繫 事態推移를注視

陸軍側의態度와意向

【東京電話同盟】上海에서發生한 水兵射殺事件에 對하야 陸軍에서는 二十四日朝來 海軍側과緊密한連絡을 取하야 陸軍으로서 取할措處에 對하야 愼重研究中이던바 各地에서 發生하는 不祥事件의頻發은 日本朝野를 極度로 憤慨시기고 特히今回와가튼 南京政府의首都라할만한 上海에서 또다시此種不祥事를 發生케한것은 南京政府及 黨部가 深刻執拗하게 抗日侮日煽動을 行하여온것을 明白히 實證함이다 이에對하야 取締에 全然誠意를 갓지안한것을 白日下에 暴露한것이라고 斷定된다 元來本事件은 昨年中山兵曹射殺事件 그他今日까지 山積된 個個의不祥事件과가티 一日이라도 速히 解決치아니하면 아니될것이며 個個의解決이假令圓滿히 成立된다하더라도 蔣介石統裁下의南京政府及 其母體인 國民黨部自體가 今日과가튼 態度를 根本的으로 悔悟反省치 안는限 此種不祥事件은 今後隨時隨所에 頻發할것은 明瞭한것이다 따라서 不祥事에 對한 個個의 解決과 別個로 近近根本的 態度로서 南京政府及 國民黨部를 反省시키던지 그러치안흐면 斷乎한決心下에 此存否를 對照로 하야 邁進할것이다 이以外에 [illegible] [illegible]水兵事件 [illegible]하야 山[illegible] 不祥事件의 [illegible]한 解決方法이다 그리고 日本으로서 [illegible] 本的[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 時期는 이제야 到來하엿다는 것이 部內의一般意向이다 [illegible]하야 모든事態에對 [illegible]도 이미 完了되여 [illegible]과의 [illegible]下에 [illegible]하고 잇다 以上과가튼 [illegible]인고로 來二十七日 大演習에 出張豫定이던 [illegible]長은 大演習出張을 中止할模樣이다

八面鋒

◇ 朝鮮에 農地令이 實施되지도 來月二十日로써 滿二個年이되는同時에 最初의契約更新拒絶通知를 할수잇는 時期라고。

◇ 二年間잠잠하든 地主의自由를 이機會에 한번行使한다는것은 反面에 小作權의亂動을 招來하지나 아니할가。

◇ 作人에게 過失이업는以上 地主의便宜만 생각하야 移作을 斷行함은 人道問題。

◇ 法令이 아모리具備하다하드래도 良心과道德이 發達되지 아니하면 法令의비출 내이기 어려운일。

◇ 하물며 法의코를 요리조리 避하기에 餘念이업는 現代社會人心이리오。

◇ 이러한機會에 法令의强化와 作權亂動의 徹底的防止에關한 新方策을 樹立함이 急務아닐가。

高級別誂注文洋服 景品付 大賣出

特約店募集 創業明治二十八年

◇見本送呈(申込은大阪에)

二十圓부터 三十五圓까지 別誂注文多 服折衿三揃

十八圓부터 三十五圓까지 別誂注文 多오ー바

◎全鮮各地方에 出張員의 便宜가잇사오니 多少를 不拘하시고 愛顧하야 주시옵소서

景品 抽籤券百枚一組에對한景品

一等 二十圓 三千圓割增金付 勸業債券二十圓券二枚 一本
二等 十圓 三千圓割增金付 勸業債券十圓券一枚 一本
三等 와이사쓰 高級푸로드ー스로製 三本
四等 네구타이 本絹製高級品 五本
外 카우쓰鈕 全部에添付

規定
一、三揃、上下、오ー바一着에一枚의抽籤券添付(上下바지만은除)
一、抽籤券百枚一組로(가)組(나)組로當籤番號는各組共通으로합니다
一、抽籤은各新聞社立會下에昭和十二年一月中旬에行하고本紙上에發表합니다
一、當籤抽籤券은本店에送附하시면 그것과引換하야景品을送付합니다
一、抽籤券은昭和十一年十二月三十一日까지의注文品에添付합니다

外務員數十名募集(履歷書同封京城支店에申込을乞함)

縫製卸問屋 正司憲商店 大阪市東區谷町一丁目一四
京城支店 京城府櫻井町二丁目一八一의三〇

製法 日、英、米、加、愛蘭專賣特許
有馬青山太郞至醫學博士創製

免疫元 아ー오 AO

結核

AO의治療的應用
肺結核、肋膜膜炎
皮膚結核、眼科結核、外科結核、
泌尿生殖器結核、喘息等
特히肺結核의初期及眼科的結核에卓効잇合은 이多數醫學大家들의實驗報告로써確實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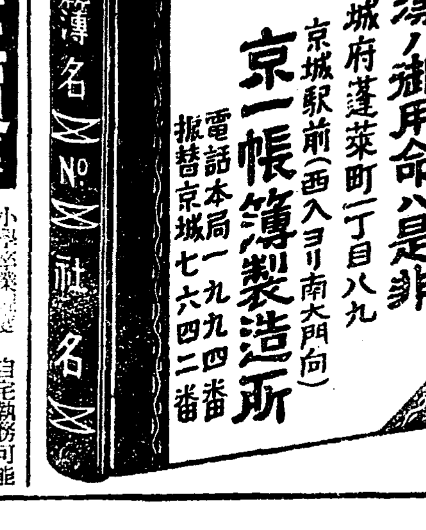
AO의豫防的應用
潛伏結核、淋巴腺腫、
虛弱體質、結核疑症等
特히腺病質並結核의疑心잇는學生과兒童에對하야서는꼭接種을試驗하야서發病豫防、體質改善을圖謀하기를바란다

AO의診斷的應用
治療를兼한無害한診斷法

解說書呈上
各地藥店에 有
大人用 一筒及五筒入 小兒用 一筒及五筒入
大阪市東區北濱四丁目 發賣元 須美商店

現金問屋 (相違表進呈)
冬物品揃
毛編 メリヤス オーバ セーター 手袋·靴下
合名會社 佐野繁商店 大阪市東區久太郎町四丁目
電話船場四一九〇一·二 振替大阪六九六二三六番

冬物洋服品揃
羅紗製品 卸問屋
服商店生地見本相場表進呈
大阪市谷町一 石尾仁本店



帳簿ノ御用命ハ是非
京一帳簿製造所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九
京城驛前(西入ヨリ南大門向)
電話本局一九九四番
振替京城七六四二番

青少年 通信社員募集
小資本業으로 自宅執務可能 高尙、愉快한業務(事務簡易) 月收多大、詳細略記入는 二錢書申込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部開始◇學則要二錢切手
第四十七回生徒募集 十月十七日迄隨時入學許可 隨時授業ヲ開始ス
◇擴張大校舍
實踐簿記專修學院(夜間)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〇番)

◎開學補缺生募集은十月十七日迄隨時入學許可隨時授業開始(晝夜)
◎中學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學校入學又入編入學受驗準備(學則要二錢切手)
京城 中等豫備專修學院
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〇番)

純國產

今のチウインガム를 씹으서면
口臭를除去하고
齒牙의淸掃作用을하고
咀嚼에依해서唾液의分泌를促進하고
消化를도으며
씹어서齒齦을健全케한다

十ケ入 一函 五錢
五ケ入 二錢
お子樣向 一錢

名古屋市中區北一色町深井
合名會社 伊藤製菓所

Maruima kokusan gamu

초대 교회의 확포

세계 종교 력사를 보건대 거진 다 「아시아」대주에서 발생하야 확포되엇다 말하자면 유교가 중국에서 낫고 또 말할것이 업고 불교가 「인도」국에서 비롯한것이라던지 「예수교」가 「유대」국에서 비롯하엿던것은 다 「아시아」대주에서 난것이니 다시말하면 동양의 분위기 안에서 영조된것이다 그러한중에 「예수교」가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보다 특히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운동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운동을 표방하야 「유대」국에서 이러난것이다 그리하야 그 수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타방국에까지 전파되여 「아시아」대주에 교회가 설립되고 따라서 이 운동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을 근거로하야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베드로」와 「안듸옥」을 근거로하야 외국 모든 민족들에게 전도하는 「바울」이 잇섯던것이다 세월이 감을 따라서 이운동이 점점 진전되어 사면으로 퍼지서 마츰내 조선에까지 올것이 다른 따우에는 어두움의 세력이 얼마나 컷던지 복음전파의 계획은 쉽히 근실하엿다 그리하야 저간에 세월은 二천년을 허비한 오날에서서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독바로 듯지 못한것은 실히 애잇석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바대로 전하면 반다시 다 알게하고야 말것은 사실될것이다 「조선」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지가 이미 五十년을 지낫스니 이 복음을 듯는자 적지안흘터이나 과연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닷고 그대로 힘쓰는자 얼마이냐 참으로 가련하고 슬프니 회개하자 복음의 진리가 지심으로 각사람 마음마다 확포되기를

孔子教"看板"으로 思想運動을 劃策
泰川、寧邊、博川을 中心한 檢擧事件의 眞相判明

【新義州支局電話】공자교（孔子敎）를 표면간판으로하야 유생들에게 민족주의사상을 선전하고 천여명의교도를 획득하야 사상운동의 조직계를 계획한사건이 평북경찰부의손에 검거되어 방금엄중한 취조를받고잇다한다

사건의내용인즉 최근에 판명된것에의하면 지난이월이래 평북영변(寧邊)태천(泰川)、박천(博川)등지에서 백원당(白猿堂)이라는별명을가진 백삼규(白三圭)의 유혈을 조선내에가저다 이장(移葬)한다는명칭미테 당국의허가도 업시 기부금을 모집한다는 사실을 탐문한 평북경찰부에서는 그후 내사한바에의하야 영변군내의 공자교도와 유생들한테서 기부금을 모집하는사실의 확증을잡고 이때내사를 거듭하든중 지난 칠월이십일일에는 고등과의 말영(末永)경부외한명이 영변에출장하야 평남경찰부의 응원을어더가지고 진상을 규명한결과 다음과가튼 내용이 들어낫다한다

경남출생 김기한(金起翰)이라는사람이 일한합병이후 불만을품고 국외로망명하야 만주에잇는 대한〇〇단(大韓〇〇團)에서 한동안 활동하다가 그후 밀령을띄고 조선내에들어와 치안유지법위반으로 징역팔년까지치른 인물로 최근에는 한문학（漢文學）을 부흥한다는 명목미테 소회목변에 평남대동군(大同郡)에변체교(變體敎)를창설한후 중앙에는 공자회원을두고 각도에는중학원(中學院)각군에는 소학원(小學院)을 설치할방침하에 동집변 오월에 그곤거인중앙총부（中央總部）라는것을 녕변군하 충도제(從道齊)서당내에두고 이래가입자를 권유하야왓는바 금일까지 약일천이백명의 교도를획득하고 그리면으로는불온한사상을 선전하야왓다한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의 불온한 행동이 탄로됨과동시에지난칠월이래도 평북경찰부에서는 극비밀리에 영변、태천 박천등지를 중심으로 검거를하기 시작하야 동교의간부로리모(李某) 한모(韓某)김모(金某)와 두명을 취조하는일편으로 그들의 진술에딸아 동교간부 이십여명을일전에 검거하얏는데 방금경찰에서는 동교교도들에게 해산을권고하고잇다한다

유해수를 복잡어다가 결속하고 말엇다

大峴町에腦髓炎

특히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아서가는부서운 전염병이 서대문서관내에 발생하엿다

부내대현정(大峴町)삼백번지에 사는 리범철(李範喆)씨의 딸림언(林彦)(二)은이십오일오전열시쯤에 류행성 뇌척수막염（流行性腦脊髓膜炎）으로진단되여고부립순화원(順化院)에수용되엿다

初中等學校의 各科目을再檢討
實生活에의適合을目標로 學務局서具體案考究

실생활에 적절한중등 초등교육의 철저화를기하야 조선교육계의 중요과제로하야 학무국에서는중등초등교육의 확충계획과함께고구중인바 이구체안 작성을위하야 조선교육회의 긴능을 동원하야 중등초등교육의 전교과목에대하야 재검토를 하려고새로히 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시월부터 제일회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되엿다 이위원회의 조직은 조선교육회장이총독부와 경인(京仁)지방의 학교직원중에서 위촉하야 압흐로삼년동안다음과가티 각학과목에대하야 신중히 검토를하야서 근본적교육지도법의 확립을 긔하기로되엿다

▲中等教育
『十一年』理科、體操、家事、
『十二年』修身、公民、國語及漢文、畜産、商事要項
『十三年』外國語、地理、數學、耕種

▲初等教育
『十一年』理科、體操
『十二年』國語、國史、職業、唱歌
『十三年』朝鮮語、算術、圖畫

要視察人二十餘名檢擧
慶南警察部活動開始
演習前期한豫備檢束인듯

【釜山支局電話】이십오일오전네시쯤에 경남 경찰부고등과(慶南警察部高等課)의 강긔(江崎)수사주임지휘하에 경찰부와 부산서의형사십오명이 자동차를 몰아 부산부 목도(牧島)와 대신정(大新町)방면을 습격하고 김시엽(金時燁)(三二) 박룡선(朴容善)(二五) 김영종(金永鍾)(二二)등 요시찰인 이십여명을 검거하는동시에 그들의 가택을수색하야 다수한서적과 서류를압수하여다노코 목하엄중한취조를 계속하고잇는데 아마 구월이십구일부터 시월이일까지에 거행되는 남조선방공연습을 전긔한 예비검속인듯하다한다

南朝鮮防空演習記念郵印

오는 구월이십구일부터 시월이일까지 남조선지방에서 거행하는방공연습(防空演習)을 긔념하기위하야 체신국에서는 특수통신일부인(特殊通信日附印)을 사용하기로되엿는데 사용하는 우편국은 부산(釜山)부내 각우편국소와 경주(慶州)포항(浦項) 울산(蔚山)진해(鎭海)마산(馬山)통영(統營)진주(晋州)등 스무곳이라한다

富豪子弟가 拳鬪劇實演

이십오일 오전한시반경에시내 인사정(仁寺町)일백칠십삼번지중국료리집 보영루(寶榮樓)에서 시내 서린정(瑞麟町)일백이십륙번지 부자집아들인 윤해수 (尹海秀)(二三)가 술이크게취하야 그집에서 료리를먹고잇든 시내 창신정(昌信町)오백팔십삼번지의구실구호 한위현(韓偉鉉)(二〇)에게 차용증서 전긔윤해수가 권투를할줄아는것을밋고 마음대로퍼루시합하드시 난타하야 상당한 상처를입혀 일시그곳은 피투성이의 수라장이 되엿섯는데 드듸여 소관종로서원이와서 전긔

朝鮮醫師協會總會 盛大히開會
貴重한研究報告가잇슨後 午後에는懇親會開催

조선의사협회(朝鮮醫師協會)제팔회총회와 제삼회학술연구회는 구월이십오일오후한시부터 시내 남대문통(南大門通)세부란스의전(世醫專)제일강당에서 개회하야 약륙십명의 회원이 모히여서 순서에따라 각회원의 연구보고가 잇섯고 계속하야 리의식 (李義植) 씨에게 금년도장학상 수여가잇섯는데 총회끗난후 일곱시부터는 경성역 (京城驛) 루상식당에서 회원간친회 (會員懇親會)가잇다고 한다

명년도 숙제보고(宿題報告)의 담당자는 다음과가티결정되엿다

一、基礎方面 醫博 鄭一千氏
二、臨床方面 醫博 金晟鎭氏

(사진은 총회 회장)

平素에校內行動의 事實을摘發質問
被告들은異口同聲으로否認
中央高普赤色事件第二回公判

소위중앙고보 적색독서회사건관계자 한동정(韓東正)등 여덜명에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제이회공판은 이십오일 오전열시부터 경성지방법원 형사부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 관여미테 열리엿다 지난십팔일 제일회공판의 뒤를이어 사실심리를계속하야 재판장은 피고한동정、김세환(金世煥)장현진(張鉉進)송재찬(宋在贊)리룡규(李容圭) 류형(柳衡) 류인수(柳仁洙) 리종열（李鍾說）등 여덜명을 그들이들식혹은 세직、네직모혀은수에따라들의 세직을 한꺼번에 번가라세워노코 그들이서로 협의하엿다는 사실、즉군사교련（軍事敎練）실시반대 원파（圓坡）옹동상 수립기부금 모집반대 교원 소행 조사 독서회 동지획득、하긔휴가중 농촌피폐 실황조사、만주출병반대、신문사주최의 계몽대(啓蒙隊)참가등의 사실을 날카로운 어조로 자세히 질문하는한편 피고들은 사회과학을 다만연구하는데 지나지안하엿다고하나 피고들의 독서회의 배후에는 리재유(李載裕)최승복(崔昇福)을 통하야 빼처잇지안하엿느냐고 물으매 피고들은 다가티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사회과학연구재료로 전긔사실을들어 토론비평한일은 잇스나 다만연구한데 불과하다고 말하며 재판장의 질문하는 리재유의거문조이 빼처잇섯다는것은전연아지도못하는일이라고 부인하엿다 공판은 오후에속행하기로하고 오후령시칠분에 일시휴정하엿다

元町天狗食堂에火災
損害千圓假量

이십오일 오전열한시 사십분가량되여 부내원정(元町)이정목팔십륙번지 강명덕(姜明德)이가 경영하는 텬구식당(天狗食堂)에서 불이 이러나서 삽시간에그식당 우아래층과 및 그여페잇는 과일가가등 한채두집을 전반소하고 오후령시십분쯤에 이르러 불을 잡엇다 원인은 그식당부엌에잇는 "까스"에서불스길이 새여나오기때문으로 손해는 천원가량이라한다

運動

西朝鮮中等選球 崇中、崇商決勝에

【平壤】平壤每日主催와 本社平壤支局後援으로 開催된 第六回西朝鮮中等學校籠球大會는 二十三日 午前八時半부터 遠來의參加選手 新義州三務를 參加하여 鎭南浦商工 平壤高普 崇仁商業 崇實學校 光成高普 平壤農業八個校 百餘名選手들의入場式이 崇仁商業樂隊의 奏樂에서 擧行되엿다

鎭南浦商工主將李鳳吉君의宣誓文朗讀 本部側과審判部의 注意指示가잇슨後 崇實對 平高의一回戰으로 競技는開始되엿섯는데 中學生들의'게임'인 만큼熱誠과技로 苦戰그리고 激戰을 繼續하여 익여서조코 저도못그릿지안은 戰況을 보이여 萬餘觀衆을 極度로 熱狂시키다가 第一日은 準決勝戰가지 終了하엿고 二十四日午後四時부터 崇中과 崇商의決勝戰을 行한바 二對二의激戰끄테드듸여 게임을 마치고 二十五日에再次決勝케되엿다

◇第一回戰
崇實1 平高0
前半(0-0) 後半(0-0) 延長(1-0)
光高4 平農1
前半(2-1) 後半(2-0)
寧崇4 鎭商1
前半(2-1) 後半(2-0)
崇商5 新三務0
崇商對遠來의 處女出戰 新義州三務一回戰은 午後一時十分부터 崇商先蹴으로開戰 前半戰3-0 後半戰2-0의원사이드게임을繼續타가 崇商五對零으로勝하다

◇準決勝戰
崇中2 光高0
前半(1-0) 後半(1-0)
崇商8 寧崇0
前半(1-0) 後半(7-0)

實業籠球日程變更

京城實業團聯盟式籠球聯盟秋季리ー그戰日程은 다음과가티 一部가變更되엿다
▲二十六日=遞信對府廳(朝銀코ー트午後一時)朝銀對殖銀(同四時)
▲三十日=殖銀對府實(朝銀코ー트午後一時)鐵道對遞信(同四時)
遞信對殖銀(殖銀코ー트午後五時)鐵道對遞信(殖銀코ー트午後五時)

奉天滿俱來征

京城實業野球聯盟에서는 奉天滿鐵野球俱樂部를 招聘하야 來二十七日午後二時에 對京電、二十八日午後四時에는 對府廳戰을 行할터이라한다

神宮卓球豫選會 黃海道代表決定

第十二回 朝鮮神宮體育大會 卓球部 黃海道豫選會는 二十三日 午前九時半부터 海州体育館에서 開催한바 代表選手로 許鄕明(片倉生命)元容植(呂業物産)鄭信欽(金融組合)等 三人을 決定하엿다

◇準決勝
許鄕明(片倉)3…0鄭信欽(金融)
元容植(呂業)3…0金容德(海州)
◇決勝
許鄕明(片倉)3…1元容植(呂業)
◇三等決定試合
鄭信欽(金融)3…0金容德(海州)

慶北女子陸上經過

【大邱】第十二回朝鮮神宮女子陸上競技慶北女子選手豫選大會는 지난十八日午後二時부터 大邱女高普運動場에서 擧行한바 戰績은다음과갓다
【六十米】尹金玉(女高)八秒五
【百米】李玉華(女高)一四秒二
【二百米】裵玉仙(女高)三三秒五
【八十米허들】崔貞浩(女高)一三秒
【四百米】裵玉順(女高)一分二秒
【四百米리레】女高軍 一分四秒
【投砲丸】張永順(女高)七米七六
【投圓盤】張永順(同)二一米五一
【走幅跳】尹金玉(同)三米九二
【走高跳】李戊任(同)一米一八

平南中等庭球經過

【平壤】平南府體育協會主催 第八回平南中等學校庭球大會는 二十四日午前九時부터 平壤公設코ー트에서 擧行되엿는데 大激戰끄테 崇商 林明錫 李海奎組가 優勝旗를 獲得하야 母校를 빗내엿다。이날의 戰績은 다음과갓다。
【準決勝戰】
崇商(林明錫 李海奎)4…3平師(田時周 李基淵)
【決勝戰】
崇商(林明錫 李海奎)4…2安農(車三◯ 吉仁福)

洪原署突然緊張 青年多數를檢擧
某種組織體가綻露?

【洪原支局特電】이십사일 함남홍원서(洪原署)원은 때아닌 비상경계망을펴고 관내네면에 빼처 적색청년이라고 지목되는 림모(林某)외 마흔명을 검거해다가 엄중한 문초를 개시햇다 사건의내용은 극히 비밀에 부치고잇스나 어떤 농민지하운동의 조직이 미연에 발각된것이나 아닌가하여 일반주민은 연전에잇든 주민의 시위운동때와 마찬가지로 중대하게보고잇다

小兒三名輕傷 電車振動으로

이십오일아침 아홉시사십분경황금정(黃金町)칠정목에서 장충단(奬忠壇)쪽으로가는 장홍긔（張洪基）가 운전하는 경칠십이호전차가부레ー키의 고장으로방침나무(枕木)에 부다치는 바람에 마침그전차를 타고가든 다옥정(茶屋町)일백사십일번지 리봉남(李奉男)(一三)(女)외 어린아이세사람이가벼운상처를 바덧다한다

황소盜難

지난이십삼일오후열시로부터 그이튼날인 이십사일오전세시까지사이에 부내연희정(延禧町)백구십오번지 달구지군 오한석(吳漢石)(三三)의집 오양간에 어떤자가 드러가서 그곳에 매두엇든 시가 이백팔십원짜리황

도적질하다 辱먹고傷害致死
咸興法院서四年役求刑

【咸興】단돈팔십전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법망에걸려 징역사년의 구형을바든 사나이-강원도 강릉군 강릉면 로암리(江陵郡江陵面魯岩里) 리종덕(李鍾德)(二三)은 상해치사죄명으로 이십이일 함흥법원에서 공판이개정되야 징역사년의 구형을 바덧는대 그범죄내용은 금년사월하순구일 오후 열두시 동리 김호현(金鎬賢)(二五)의소유장작이시가팔십전어치를 도적질하다가 주인에게들켜 욕먹은것을 분히여이여 그복수로 오월사일오후열두시김호현(金鎬賢)을차자가서여시장작으로난타하야중상식혀드듸어십오일죽게하엿다고하는것이다

四百餘名表彰 遞信記念日에

오는 시월일일은 조선체신관관제(遞信官制)가 시행된 체신긔념일(記念日)이므로 이날에 체신국에서는 오전열시부터 별관광장에서 긔념식과 표창식(表彰式)을 거행하기로 되엿다한다 표창될 사람은 전조선에서 사백팔십인이라한다。

碧潼對岸에反滿軍

이십사일 오전여덜시반쯤되여 평안북도 벽동군 봉곡 출장소(碧潼郡鳳谷出張所)바로 대안인 관전현 대황구(寬甸縣大荒溝)상류를 만주국사람의 배세척이거슬러올라가고잇는중 만주국군복비슷한옷에다가 붉은빗나는 팔띄를 걸고모젤식 권총을가진 계통알수업는 반만군 이십여명이 나타나서 총을노흐므로 봉곡출장소에서는 령목(鈴木)부장이하 다섯명의 경관이 마저싸워서 이십분만에 물리첫다。

"戰友同盟"關係者 金琦潤外八名送局
"赤色農組再建"事件
端川署에서咸興法院으로

【咸興支局電話】금이십오일 령시구분 함흥역에도착한 남행렬차에는 단천전우동맹（端川戰友同盟）관계자 김긔륜(金琦潤)(三七)외여덜명이 함흥지방법원검사국에송국되여왓다

그들아홉명은 지난십륙일함흥법원검사국 대정(大町)검사가 단천경찰서에 출장하야 취조하든것으로 그동안 일단락을 지엇슴으로 마침내 함흥검사국에넘긴것이라한다

그런데 이사건은 지난삼월부터 단천경찰서에서 동군내를휩쓸어 약오십명을 검거한 큰사건이다 이제 사건의 내용을탐문한바에의하면 지난소화팔년도에 전긔김긔륜외수명과 단천적색농민조합관계자로서 교묘히검거망을 빠진사람또는 이미그사건으로 복역하고나온사람을 규합하야 또다시단천적색농민조합을 재건코자운동하야 세면(面)에 지부를두고여섯동리에 네단체를 조직하야약오십명의 조합원을 규합한것이라한다

그리고 전긔김긔륜외여덜명은 치안유지법위반과 출판법위반의 두범률로써 재단하기로 되엿다한다

本町四丁目에 火災
三棟燒失後鎭火

이십오일 오전다섯시경 본정(本町)사정목오십번지 중국사람 류옥산(劉玉山)의집에서 출화하야 불은이웃에잇든 진촌번미(津村紫藤)의집까지모다 세채를 태위버리고 가튼시간이십오분경에 진화하엿다 원인은 실화인듯하다

順化院에入院한 窃盜容疑者가脫走
留置場에서赤痢로診斷되엇든金德成
警察大驚所在嚴探中

긔보=주소부정 절도범 김덕성(金德成)(二三)이라는자가 절도 용의로서 대문서에 류치되여잇든중 이십삼일에 적리(赤痢)로 진단되여 순화병원(順化病院)으로 옴겨젓는데 온순하게 병실에서하로밤을새인 이십사일 오후네시쯤에 교묘히 간시의눈을 피하야 빽주에 병원담을넘어 달아낫는데 종로서와 서대문서에서는 목하 범인을엄탐중이다

天氣予報

概況 弱한低氣壓은 木浦近海와 江原道近海에잇서서 朝鮮의 氣壓配置는 不安定하다. 高氣壓은 北滿에七六六粍 東北地方에 七六四粍를 보하고잇다 北滿은 晴 南滿과朝鮮은 호리고 곳곳에 적은비와 안개가잇다 琉球諸島는 호리고 日本內地는 日氣가조타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흘엿다하며 來日도갓고 京畿全區도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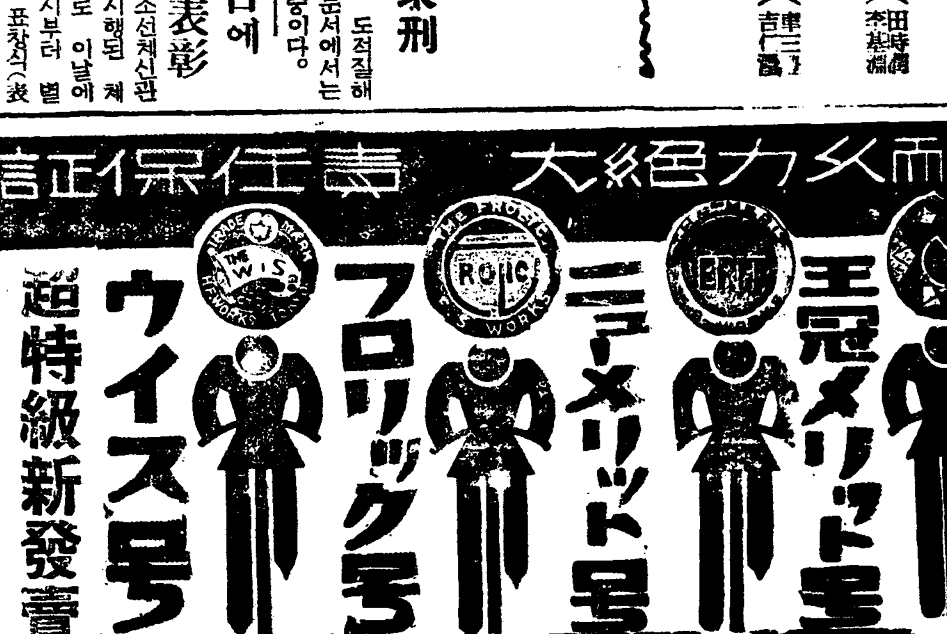
昨日最高 二六度
同 最低 一五度八
今朝最低 一五度一
今日正午 二〇度四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全國各地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 國 二一八二番 三六二番
振替金山一五三五番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東亞軍手製造家募集
一、弊所製品만으로는 一般供給上堪當不能으로因하와 今般專屬製造家를 募集함
一、弊所製作軍手機는 他機에比하면五割以上產出되오며 製品은勿論良好함을確實保證함
一、製品은四季勿論永久引受함
一、希望人士는無料教授함
一、弊所機械五十組(一組)로定하와 一般에配付하되 希望人士는會又는書面으로來談
一、機械購入時는臨時入來하시면 現地에서詳細히調査하신後 弊所에一次來臨하시와 實地로軍手機運轉作業光景을
一、御覽하시면 十餘名職工이 業界에서元祖로 十餘年에多大한經驗으로 軍手袋製造卸賣業으로最高權威를占領하고 進行中에有한弊工場이외다

朝鮮副業協會 談
東亞軍手機는 特別簡單巧妙히改良을加工하야 優秀하게製作되와 普通機에比하면五割以上產出되옴을 確實保證함
勿論朝鮮副業協會에問議하시든지 一般的迷惑한點에對하야는弊所에問議하심은 (案內書御請求次第送呈)
【店章捺印限 軍手時勢表進呈】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東亞手袋工場
電話本局②五九五七番・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いろくとからだに毒の ある方は
毒掃丸を召し上れ
気持よく通じ毒をさる
薬屋に有り 代一廿五錢 一円 二円五円
여러가지로 몸에 독이 잇는 분은
독소환을 잡수시오
기분 조케 독소를 제거
약점에 잇습니다



流行歌
알어달나우요
朴英鎬 作詩
金松奎 作曲
李■影 唄
一九〇七
오케ー레코ー드

補血强壯新藥
八大醫學博士御推奬

疲勞된身體
健康回復의
가을!

여름동안 炎暑로 因하야 당신의 身體는 精神的肉體的으로 疲勞해젓습니다
疲勞는 萬病의根源입니다
完全하게 疲勞를 恢復하심에는 服藥期인 이때에 健康의寶藥 「ロクミン」을 服用하심에 잇슴니다

★効 能★
▲神經衰弱 ▲早老
▲肺結核 ▲老衰防止
▲肋尖가다루 ▲倦怠感
▲精力減退 ▲盜汗
▲貧血 ▲食慾不振

—(藥價)—
五〇〇瓦入 金三圓也

京城禮智町
發賣元 天一藥房

仁丹의必要期에 懸賞의絶好期!

大懸賞

締切期日이迫到!!

仁丹二十錢分으로 白米二俵가當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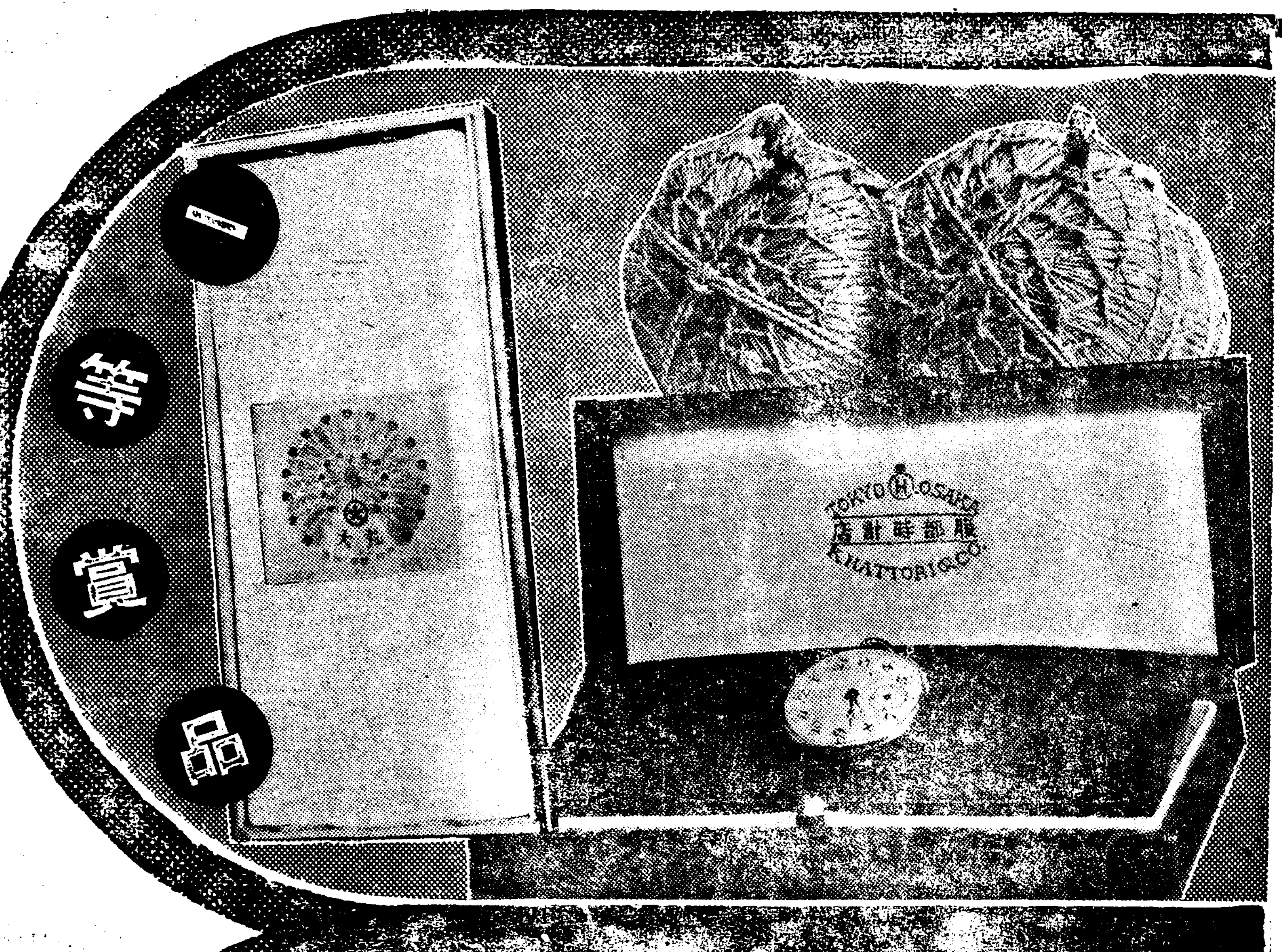
胃腸을健全하게한다 暴飮暴食其他모—든胃疾患等에依한胃壁筋의衰弱弛緩에對하야 仁丹의藥効는 實로 理想的으로 能作하야 極히 自然히胃壁의緊張力을 賦與하고모든胃腸障害를 退治하고 完全한消化機能을 營爲하게하며또腸作用을 强調하야榮養攝取를正常하게하며保健의核心인消化器와 其機能을全般的으로振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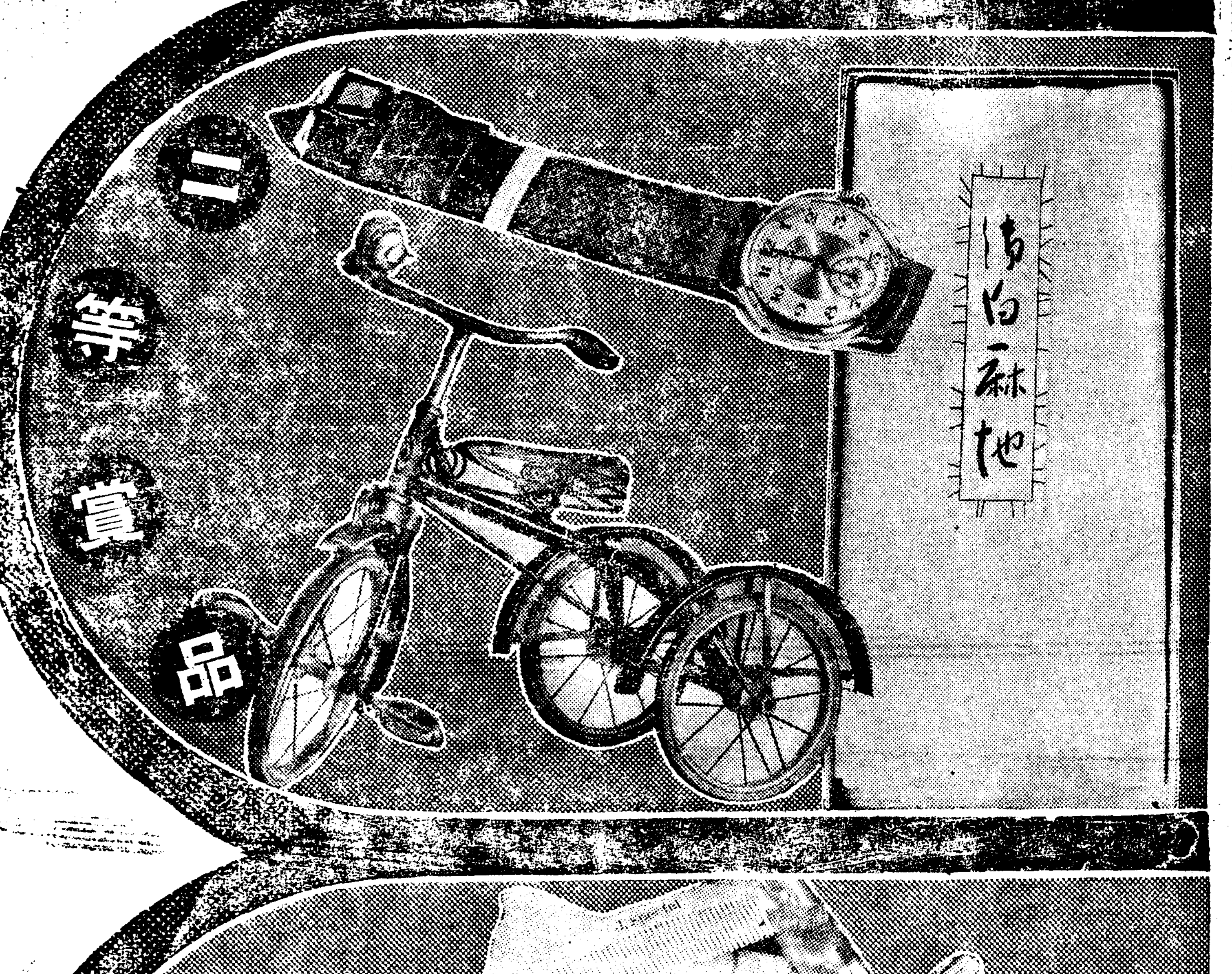
頭痛을解消한다 感氣、睡眠不足、心身疲勞、便秘等으로생기는 頭痛、眩氣、氣分의憂鬱에는卽座에서 仁丹을服用하는것이必要。仁丹의卽効는 곳 頭重과憂鬱을 解消하야明朗爽快하게 氣分을回復할수잇다

精力榮養을旺盛히한다 仁丹에는貴藥朝鮮人參의가장精選한엑쓰를包含하야增健과養活에 有効한作用을하고 또 近來 特히 推奬되여잇는 비타민을 賦加하야 消化와榮養吸收에効果잇는 一方各種脚氣에는 有効한 巧驗을齎來하야 이綜合的効果는 全身的으로 生活機能을振作한다

銀粒仁丹藥價

御試用分	(百五十粒)	十錢
富士容器附	(三百二十粒)	二十錢
滿洲容器附	(四百粒)	三十錢
家庭容器瓶入	(九百粒)	五十錢
御德用分	(一千粒)	五十錢
御德用瓶入	(二千二百粒)	一圓





알기쉬운懸賞의應募法

問題　只今가장人氣잇는銀粒仁○

答案　右○中에너허서適當한文字를仁丹入定價二十錢分의外袋에記錄하야四匁마다三錢切手를貼付할것 (郵送不足은受付치안는다)

答案送附先　大阪市東區玉堀町 仁丹懸賞係

期間　自八月十二日 至九月末日 五十日間

抽籤發表　十月中旬

賞品

一等　白羽二重生地 白米二俵 金側腕時計 右の内お好みの一品　拾名

二等　白麻生地 子供用三輪車 クローム腕時計 右の内お好みの一品　壹百名

三等　シャープペンシル 入浴用品一揃 御化粧用品詰合 右の内お好みの一品　壹千名

四等　粗品進呈　壹萬名 (以上拾萬名の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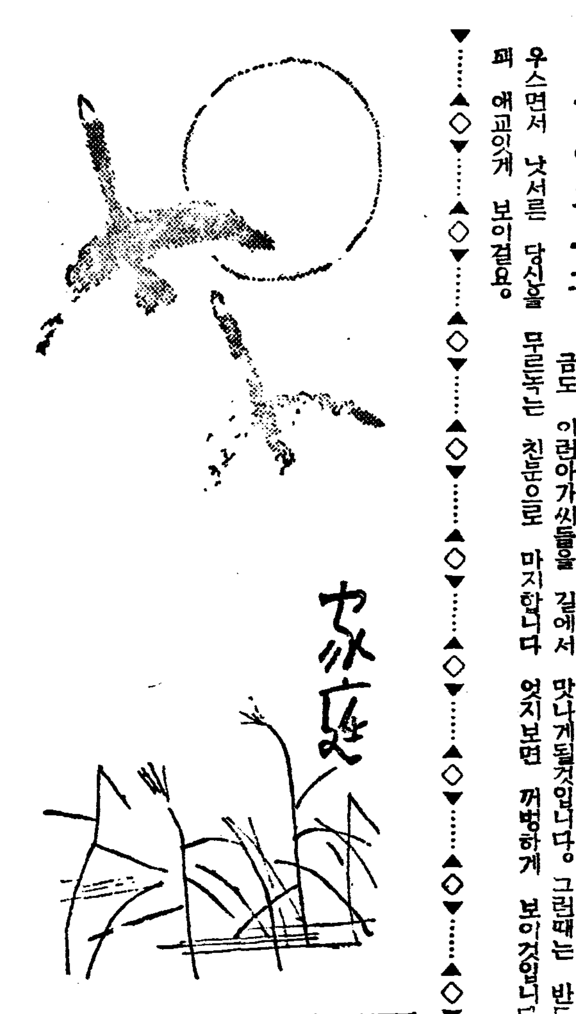
大阪・森下博營業所

저ー시골두메 길에피는꼿

『이게어디녀자일까?』 이 사진을 보시면 우선 그들의 국적(國籍)을 캐고십흐실것입니다. 작난꾸러기 서양녀자들이 갓쓴조선양반을 숭내내는것이 아닐까? 아닙니다。 이래보여도 영국의 아가씨들―만일여러분이 『웰스』지방의 시골두메를 려행한다면 지금도 이런아가씨들을 길에서 맛나게될것입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그아가씨들이 생그레 우스면서 낫서른 당신을 무르녹는 친분으로 마지합니다 엇지보면 꺼벙하게 보이것입니다만 머리에쓴 그검은갓이 퍽 애교잇게 보이걸요。

군밤과고구마로 지터가는가을거리

애기네의간식으로모다조흐나 실상밤보다도고구마



거리거리에는 어느듯 고구마장사와 군밤장사들이 돌아 다니고 잇습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로부터 기러가는 서울의 가을은 올해도 역시 변함이 업습니다。 그와동시에·가을로부터 겨울 한철은 애기네의 군것질도 밤이아니면 고구마로 그 두가지가 가장만히 팔리고 잇습니다。 비단 애기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때외의 요긔로 그 두가지를 자시는 경우가 드뭄지 안흘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와밤의 자영분은 과연 얼마나 될니까? 그두가지중에서는 과연 어느것이 어느것보담 낫고 못합니까?

식료품의 영양을 대별한다면 두가지의 종류가 잇습니다。 즉 하나는 신체의 조직(組織)을 도웁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에네르기를 맨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마나 밤이나는 모도 함수탄소(含水炭素)를 주요한 성분(成分)으로 가지고 잇는 까닭에 속에 들어가서는 산화(酸化)되야 카로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종류의 영양으로서 론지하건댄 다음종류에 속한다고 볼수박게 업습니다。 그 성분을 좀더 자세히 분석한즉

고구마。 수분 六九、八 담백질 一、一 지방 〇、二 함수탄소 二七、七 섬유〇、七

밤。 수분 六〇、一 담백질 三、五 지방 〇、四一 함수탄소 三三、六 섬유〇、九

이와 갓습니다。

×

고구마는 밤보다 수분이 만코 고형분(固形分)이 저습니다。 그만큼 영양분도 고구마가 밤보다 적다고 볼수잇습니다。 그러나 고구마의 노란 비츤 비타민 에이가 잇는 까닭입니다。 즉 노란빗의 색소(色素)인 카로틴은비타민이에랍니다。 그럼으로 고구마는 흰부분보담 노란부분이 더 조흔것은 물론이요 그점에 잇서서 고구마는 밤보다도 조흔 것입니다。 흔히 밤을 고구마보담 더 고귀한것으로 치지만은 그것은 한 잘못입니다。 밤에는 린산석회(燐酸石灰)와 철분이 잇습니다만 그대신 고구마에도 린산이 만히 들어 잇습니다 어느모로 보든지 고구마가 밤보다 못하다고 타박할 진데기는 조금도 업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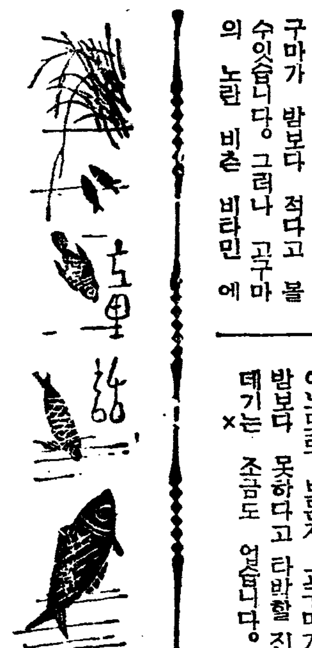
또 서화(消化)가 어떠냐하면 고구마는 밤보다 섬유가만흡니다 그섬유가 창자를 자극해서 소화를 잘되게 하는것입니다。 흔하고구마는 소화가잘못되는줄로 아나 그역시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변비증(便秘症)잇는분이 약삼아서라도잡수실만한 것입니다。 그냥맛으로보아서는 밤이 고구마보담 나흘찌 몰라도 영양으로는 오히려못한것이 사실입니다。 갑비싼 밤보담갑싼 고구마를 만히잡수서두시는것이아조 조흘니다。

昨日의運動會

이일래달은 시내각보통학교의 『교내운동회씨ー슨』입니다 어제 이십사일에도 재동공립보통학교(齋洞公普)와 화산보통학교(華山普通學校)의 운동회가잇섯습니다。 (上은齋洞 下는華山)

난쟁이벼

南基熏



가을이엿습니다 이논에도 저논에도 금빗가리 누러케된 베이삭은 무안당한사람가티 고개를 푹ー숙이고 땅만내려다보고잇섯습니다

어느날 한사람의농사군이 낫을들고 큰길거리에서서 금빗갈이무르익은논의 베를내려다보며 『참올해는 풍년인걸。 이러케고마울때가잇나』 하면서 바지를정갱이까지것고 소매를도것고 그리고낫을들고서 논으로드러가드니 벼를 비기시작햇습니다。 베가어찌도 잘됏는지 비는대도자미가나서 이농군은 도모지 힘드는줄을모르고 그뭄고뭄은큰논을거지반 반이나 비고잇슬때 어디서인지 『아ー여보세요 아ー여보세요 잠깐만 가만이게서요』 하는소리가낫습니다 귀성아버지는 깜짝놀라 낫자루를 떼러트리고 『아니 그게누구소린가 바람소린가 새소린가』 하엿습니다 그러자 또얼마잇다가 『저ー여기잇습니다』 하는 소리가 다시낫습니다 귀성아버지는 『아니 어디서 누가말을이리잘하나』 하고 말하자 『바로 귀성아버지 발아페섯는제일 키적은 난쟁이베랍니다』

이말들은 귀성아버지는 그만얼굴이 노래지더니 뒤로주춤하면서 발아폴내려다보앗습니다 아닌게아니라 다른베는다ー자랏는대 똑하나가입때릴햇는지 난쟁이가터 자라지못한채 끼어잇섯습니다 귀성아버지는 속으로만 아마요놈인가보다하고 눈이 빠지도록 드려다보다가 손으로 가르키면서 『아ー네가지금말하지안헛니』 하니까 난쟁이베는 고개를까닥까닥하면서 『녜저옵시다 그런데 제발 저하나만은비지말고 그대로두어주십시요』

『저는아즉덜 익엇습니다』 하엿습니다。

이말을들은귀성아버지는 머리를좌우로 흔들면서 입맛을쩍쩍다시드니 『안되안되너는 지금비지말고그대로두어달라하지만 이담에너를누가 구찬케비로오니 안되겟다 비는길에아조비여야겟다』 하면서 다시낫을바로들자 난쟁이베는 깜짝놀라며 『잠간만 잠간만 기다리십시요 저ー지금 비신대도 아즉익지안허서 아모데도 쓸대업스실테니 어려우시지만 그저한주일동안만 비지말고 그대로 두어주십시오』 하면서 작구만 절을 꿈벅꿈벅합니다。

귀성아부지는 가엽슨 생각이나서 한참 궁리를 하다가 『그것참 귀찬은일이다 그러치만 비말맛구나 지금 비어보래도 베게서는 한나절도 못거둘테니ー』 ー귀성아버지의 말이 끗나기도전에 『그러니까 잘생각하서서 그저 한주일동안만 그대로 두어주십시오』 『그러치만 한주일이나 잇다 너하나 비려오긴 참으로 귀찬혼일이다』 『아닙니다 뭐ー그거까지는걱정 마십시요 제가어떠케든지 해드리지요』 『그래라 네말대로 너하나마는 남겨두마 그런데 왜? 너하나마는입때익지안코 고대로고대로잇섯느냐 너하나만이 벼슬못보지도 안흐섯슬텐데』 『벼슬못본것도아니고 마침익울러고할때에 그만 다리병에걸렷답니다』 『어떠케든지 네맘대로해라 암만해도 너하고말하다가는 미치겟다 해도저무러가니 그만 나는 집에가서 볼일을봐야겟다』 『네! 네! 어서 가서일하십시요 일하는사람에겐 복이오닷니다』 하면서 베는또머리를 까닥까닥하엿습니다

며칠이지나 한일헤는되엿습니다 그러나 귀성아버지는 닷새가지내는지 한일헤가 지내는지 그까짓 베하나에대한것은 생각할새가 업섯습니다 그러나 남겨두엇든 난쟁이베는 꼭한일헤가되는날 귀성아버지 마당으로드려왓습니다 이때에 귀성아버지는 너무일만햇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등에 꼬즌 담배스대를빼서 한대피어가지고 빽빽빨때 어디서인지 〃귀성아버지 귀성아버지 전때비지안코 남기어두엇든베입니다〃 귀성아버지는깜짝놀라며 『아니네가 어떠케 혼자왓니 잘익엇고나 잘익어서 참조타』 난쟁이베는 한번몸내면서 『아ー어떠케 올넷가』 『참조타 어서가서 잘익은것들과가티잇거라』 난쟁이베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다른것이아니라 그때비지안흐신 고저를 남겨두신 은헤로 드리오니 나의몸을 까보시요 전부가 금입니다 기쁘고 반거워서 깜짝놀라며 〃웅금덩어리〃 귀성아버지는 난쟁이베를 손에다옭겨노코 두손바닥을 합해가지고 아드득 아드득하나둘까기를 시작햇습니다 그래이것이왼?일입닛가 반짝반짝하는 금덩이가 눈이부실뜻이 비치엿습니다 귀성아버지는 너무도기뻐서 야단법석을하면서 집안사람들을 끄러내여 단번에 다ー까서 만흔금덩이를 어덧답니다 끗

녀자의결혼은 멋살때가조흔가

―너무이르면 애기를잘못나어

친도 매울도 아니한 선선한 가을철―이철에 다른것도 조흔것이 만치마는 결혼하는것도 그다지 나뿐일은 아닙니다。 약혼해노코 이달 저달 미루든 결혼식도 웬만하면 이가을에 구경을 내여서 렴직한 강당이나 회관을 빌리고 친한 친구들이나 청해다가 섬대하게 식을 올리는것이 어떠한니까 시골게시는분들은 가을철엔 곡식이 나는때라 잔치할것도 작만할수 잇고 큰상에 올려노흘 과실도 만흐므로 요지음 길거리에는신랑신부를 태인 가마가끈일사이 업슬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는것이 조타하야 물이야 물이나거두치우지말고 다시한번 결혼의 의학적고찰을하여보는것도 현명한일입니다 옛날처름 결혼을 가벼웁게 취급하지안혼다는 현대사람으로서도 결혼은 몃살에 하면제일리상적인가 하는데는 소홀히하는경향이 잇습니다 결혼 적령기는 이십세나 이십오세가 제일리상적이라고할수잇습니다 녀자는 스물네살쯤되면 녀자로서의 체질이 완전히성숙하고 사물을 생각하는 머리도 일정한기준이 서게되여 웬만한일이면 실패업시 처리할능력이생기니다 어느하에 결혼한사람은 시집가서 몸에큰병이업는한 속시입신도 할수잇스며 시집사람들에대하는 걱식도 알게되므로결혼에 큰실패가 업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리상적인 결혼이라할지라도 생활에쪼들리고 상대자를 구하지못하야 어느히를 지나버리고 삼십이 갓가운편은 처녀들이 수두룩하다는것은 사회적으로 큰문제며 애석한일이 아닐수업습니다 또한 생활도넉넉하고 모든조건이 구비한사람도 공연히신랑을 너무노픈수준으로 구하녀라고 결혼이라는것은 년령에따라서큰 관계가 잇스니 웬만한곳이면 속히혼인해 버리는것이 조흡니다 그러나 조혼한녀자의 임신률은 통계상으로 볼때 여간적은것이 아닙니다 일즉혼인한사람은 어려아히업든 신가정의행복을 오래스동안 맛볼수잇스므로 장차조혼이 류행되지도 모를것입니다。 남자의 결혼적령은 이십칠세나팔세입니다 그리고 남녀의년령차이가 십년이면 조타하나 반듯이 그러치도 안코 남자의나히가 녀자보다 멋살우이면 대개는 리상적이라고볼수잇습니다

자미잇는풍습! 손톱깍는날

함부로아무때나못깍글손톱 길흉화복이왓다갓다

조선서도 손톱을 밤에깍가서는 못산다는둥、 깍근손톱을 불에너으면 못쓰는둥、 손톱에관한말이 만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여러가지로 손톱깍는날에 리유를 부처서 구별하고잇습니다。

◇월요일날에손톱깍는 사람은 몸이건강해집니다 그러나만일 외쪽가운데 손고락의 손톱만을 빼노코 깍그면 불의에 몸을다치는수가 잇습니다 그러므로 길갈때에 자동차전차를 조심해야 되고 남과싸우지마라야됩니다

◇화요일날 손톱깍는사람은 부자가됩니다。 그러나 손톱을바로이깍그면 인색한사람이라해서 남에게 미움을밧는수가잇습니다。 그리고 색기손고락의 손톱을 끈치안흐면 모처럼드러온돈도 금방다라납니다。

◇수요일날 손톱깍는사람은 조흔소식이 멀마안가서 잇을것입니다。

◇목요일날손톱깍는사람은 조흔동무가 생길것입니다만 남자일것가트면 외쪽무명지의 손톱만 깍지안코두면 그동무는 가장조흔의미의 친한 사람이될것입니다 그러므로안해가잇는 사람이나 약혼한녀자들이 이손톱을 그대로두면 무슨능파가 생기게 될터이니 주의하십시요

◇금요일에 손톱을깍는사람은 대흉입니다 꿈에라도 이날은 손톱을 깍거서 안됩니다。 여러가지 흉사가작구만 덤빕니다。

◇토요일날 손톱깍는사람은 먹쟁이요 놀기조와하고 물건사기조와 하고……어쨋든 돈을허피쓰게됩니다。

◇일요일날 손톱깍는 사람은 행복스런 래일을기다리게되답니다 그러나 깍근손톱은 하나도 버리지말고 모아서 조히에싸서 바른쪽호주머니 속에너어 두지안허서는안됩니다

◇ 이것이 일주일을두고 어느날이 손톱깍는거와 어떠타는서양사람들의 미신적풍습입니다。 사실로 꼭드러맛는다는것은 아니나 어쨋든 자미잇는풍습이기에 소개햇습니다

『맴』

팽이도 한참돌으면
어지러워 넘어진다。
맴을돌면
팽이처럼 맴을 돌면
나는 어즈러워
쓰러저 버린다。

글쓰는사람 오장환

먹어서조흔물 엇던물일까

수도물이꼭조흔것도아니다 샘물로나은것이잇서

먹는물、 즉음료수(飲料水)는반듯이 인공으로 거르고 소독한 수도(水道)물만이 조흔것은 아닙니다 조흔 우물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잇스므로 영양가치가만코 음료수로서 도로혀 나흔수가 잇습니다 우물물이 나쁜것은 첫재 우물이 불완전한까닭에 하수도(下水道)나 변소가가큰데서 더러운물이 째여드러오므로 〃암모니아〃와 균이들어잇습니다 눈으로 그냥보기에 물이탁하고 냄새가나는것은 조치못한우물놀이겟지만 보기에 깨끗하고 조흔것가트면서도 실상나쁜것이 만습니다 우물이 집안에잇서서 그물을 먹게될때에는 반듯이완전한우물이며 물이조타는것을 알아본뒤에 먹도록하여야합니다。

어떠한물이 조흔것인지 우물물을 감정하는데는 전문적으로 아라내랴면 상당히 까다롭고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가정에서 할수잇는 방법으로는 말근유리꼽부에 물을담어서 힌조히우에 올려노코 우에서부터 내려다보면 조흔물은 아모빗갈도업고 투명(透明)하며 히게 어리고 갈색으로 탁해보이는것은절분이 만히드러잇는것입니다 또한 병속에물을 한잔너코 뚜겅을 박은다음 뜻뜻하게 데워서 냄새를 마터보면 물냄새를알수잇습니다 조치못한물이라면 물론 납분냄새가 날것입니다 그러케도 물을기려서 하로동안쯤 버려두면 나쁜물은 변해버리고 조흔물은 변치안습니다 썩조흔물이라면 삼년이나 사변을두어도 변치안습니다 우물이 업는해변이나 산우에서는 비스물을 먹는데 이것은 대단히 조습니다 그러나 비스물밧는 그릇을잘소독하고 비가오래동안 내려공긔속에 잇는몬지와 더러운것이 모다씨치여진다음에 바든비스물이아니면 변질하기 쉬워서 오래두고 쓰지를못합니다 소독잘한독이나 항아리에 바더둔비스물이라면 이삼개월동안은 보관해두고 쓸수잇습니다 이비스물은 음료수로서만 조흔것이아니라 화장하는데 쓰면 더욱조습니다 비스물은 수질이 연하므로 쑤세미에서 짜낸화장수갓습니다 쑤세미에서 짜낸 화장수라하야 달리 영양분이 잇는것도 아니요 다만 물이 연하고 보드랍다는데 지나지 안흐니 비스물을 바더두고 이것을 대신 쓰도록 하는것도조습니다

유황소독법

가을철은 이사들을 만히합니다 이구집을 옴기기전에 들어갈집을 잘소독하도록 하십시요 집소독에는 유황(硫黃)소독이제일입니다 유황을 접시에 담어서 방복판에 가다두고 사오시간동안 문을닷치고 태우면 빈대는 물론 납분병균가튼것도하나남기지안코 업서집니다

三、잔금「웨이브」

『아라이코테』라고하는데이것은 『웨이브』가아니라 숫치적은머리나 바스러진머리를 부얼부얼하게이르켜세우기위해서하는법인데 역시 『고테』를뜨겁게하야가지고잔누비치듯이 잘게 지저넘기는이만큼 오래두고하면 머리가작고 바슬어집니다 될수잇는대로 원 『웨이브』로머리를구슬러서 숫치만하보이게하는법이잇스니 그법대로 하시기를권합니다。

모델ー바영아 미용사ー리무과 (吳淑根)

百咳

기침병중에도 가장고통이심한백일해 홍역의특효약으로 구미각국에서유명한 「지미[illegible]劑」의대표적제약으로 정확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허하는어린애라도 잘먹게됨으로 더욱유명하며 더구나 극약성분과 마취성분이 조곰도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임니다

그럼으로 전문가의림상치료에도 큰칭찬을밧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 오래쓰는병도 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경과를 짧으게하고 고통이심한발작을다스리며 구토와쇠약과 무서운병발증을 방지하고 밤잠을잘자게 만들어줍니다

TY-K-41

밧튼기침·천식

조선은 기후와 토질의관게로 특히 밧튼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이 만흐니 「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꼭맛는만큼 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염려가업시 잘듯고 잠을잘주무시게만들어주며 속히 근치식혀준다고 칭찬파감사로 환영을 밧고잇습니다

어느가정에도 한병식 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한숙갈… 잠재일적에 한숙갈식………

사용하시면 위험한 기침병을 예방하여주며· 잠을 잘자게하고 자는동안에 병중세의 악화를 방지하여서 무슨약보다도 속히 근치식혀줍니다

チミツシン (지 밋 신)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元三郞商店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燦爛! 美術의 清秋

本社主催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洪水가티 몰려드는 異彩와 神品들

曠古의 이 壯擧를 期待하라!

本社가 多角的으로 心血을 다하는 文化事業中의 하나인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는 果然 本社의 微衷이 알려진바잇서서 한번 社告가나매 各方面으로 聲援과 支持의 反響은 물끓드시 이러낫다。

이러틋 우리네의 文化的向上慾이 날로 그 絶頂을 向해서 올라가고잇는것은 우리네의 다가티 기뻐할일이지마는 또한 이러한 文化的意慾을 항상 북도두고 이끌기위해 本社만치 오로지 그先頭에서서 文化의 앞잡이가 되는것은 또한 本社가 스사로 가지는 한개의 크다란 矜持임에도 틀림업는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우리만이 恩寵바든 맑고 깨끗한 淸秋! 이 아름다운 風土와 氣候가 自然美의 한개의 極致이고 絶頂이라면 이러한 環境에서 비저내인 우리들의 美術은 또한 特殊한 配色과 陰影이 이 瑠璃玻璃가튼 光線속에서 더욱 빗날것이다。

搬入의 마감날을 目睫에 두고 全朝鮮 坊坊谷谷에서 드려오는 作品、作品。點點이 異彩이고 神品이라 一一히 바더드리기에만도 陶醉와 恍惚에 사로잡히거니 이러한 佳什들을 한데모아 陳列을한다면 이야말로 百花爛熳한 美術의 殿堂을 이루울것이니 이曠古의 盛觀은 진실로 우리學生美術의 金字塔을 이룬同時에 나아가서는 우리畵壇의 가장 든든한 한개의 礎石을 밟은것이될것이다。

이러틋 鄭重한 歷史的壯擧를 더한층 온전하게 하기위해서 審査員의 委囑도 될수잇는대로 學生美術에 가장 理解가 기프신 敎育者諸氏와 우리 畵壇에서도 가장 宿德과 信望이 노프신분만을 골라서 밧드럿스니 비록 落選이된다고하드래도 그作品이 한번 이분네의 눈을 거친다는것은 新進의 榮光이려든 하물며 그중에서 優秀한 特選으로 뽑힌다면 그 榮譽야말로 무엇에 비겨말할것이랴? 널리는 學生美術의 一般的水準을 向上시키고 끌라서는 한두사람이라도 天才를 發見하려는것이 本社의 意圖이거니 이意圖가 十分의 成果를 어들것을 스사로 期待하는바이다。

聲援! 이反響!

이事業을支持함은 敎育者들의義務

培材高普 張龍河

美術에對한 아모런 智識과素養을 가지지못한나로서 말슴하기는 分外인듯하나 文化에 關心을갓고 敎育界에 몸을던지고 잇다는것만으로도 今番學生美術展은 支持할 義務를 늣김니다

더말할것도업시 美術이란것은 人生生活에 必要하거니와 學生美術이라는것은 情緒敎育의 도음이되므로 더욱 그뜻이 깁다고할수잇습니다

貴社의 學生美術展覽會는 우리學生으로서 여기對한 認識을 얼마만치나 가지며 또한 技術水準이 어떠한가함을 보이여줄 縮圖라고 할수잇습니다

이러한 機會에 우리로서는 될수잇는대로 學生들의 積極的參加를 勸하고잇음은 勿論 美術外의 다른 文化的部門에 잇서서도 이러한事業과 機會가 잇서서 學生으로하야곰 여기에對한 關心을 자아내고십습니다。

文化人의 全體的事業

心香 朴勝武

貴社의 學生美術展覽會는 우리美術界의 암길을 깊드내는 意義를 가젓습니다 貴社의主催다하야 非但 貴社만의 일이아니라 美術에 關心을 가지고잇는 사람들은 勿論 널리 文化人 全體의事業이 아니면 안될것입니다。

美術에 天分이잇는 사람은 天分을 發揮할機會를주고 學生全般의 情緒上에도 影響이 클것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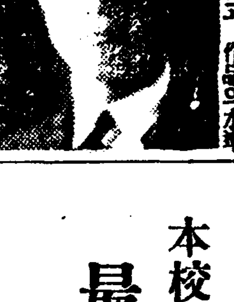
이러한機會에 第一痛切히늣겨지는것은 우리 美術關係者들의 無力입니다。이러한 事業은 當然히 우리美術關係者들이 率先하여야 될일이아니겟습니까 그러나 無力하여지기爲한 無力이 아니고 하는수업는 客觀的條件에 拘碍되여서 이모양입니다。그러므로 貴社의 學生美展은 우리美術界의 不振과 無力을 打開시켜줄 契機가되여 주소서하고 祝福할때름입니다。

公正한審査를 期待합니다

培花女高普 李萬珪

貴社의 學生美術展覽會는 가장 意義기픈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敎育에 當局한 우리네로서는 이러한 機會를 利用하야 情緒敎育의 徹底를 企圖하라합니다。

더욱 審査委員되신분들이 直接學生美術을 指導하고잇는敎育者들이 만히 參加되여잇스니 도든합니다 學生들의 實情을 잘알수잇고 作品의水準向上을 圖謀하는데 便宜가잇슬줄생각합니다。



또한가지는 제가特히 女子敎育을 마타보는 關係로 女子들은 모처럼 作品을내여노앗다가 落選이되면 그만失望해버리고 甚하면 素質을疑心한나머지에 그만거긔對한 工夫를中止해버리는수가 잇슴으로 처음에는 너무水準을 놉게하야考選하지말고 漸漸노펴서 그들의向上心을 助長시켜주엇스면하고 바랄뿐입니다

天才의發見보담 一般的水準向上을

同德女子普校 李暎九

貴社主催의 第一回學生美術展覽會는 정말意義잇는 事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敎育에 關係하고잇는 사람으로는 充分한 感謝를드려도 조호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엇! 이것이 貴社로서는 우리文化의向上을爲하야 當然한擧事이겟지요

이러한일에는 主催者인貴社와 敎育者들의 努力이合처서 비로소 조흔成果를 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學校에서는 全般에亘하야 될수잇는대로 조흔成績을 어드라고 지금 準備中에 잇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바랄것은 作品의 審査基準입니다。저생각가테서는 今番展覽會의 意義가 天才를 求하는것보담 情緒敎育의 도음이되고 그것을 向上시키는데 잇슬것이라고 맛습니다 그러므로 作品을 審査하시는 분도여긔對하야서는 저以上으로 周密한 觀察을 가지고 잇슬줄압니다마는 作品의 技術專門化를 反對합니다 專門家가 보아서 이것은 美術로서의 조흔作品이니 入選시키고아니니 落選시킨다는것보다도 차라리 그學生들의 個性의長短과 實情을 參酌하야서 그들로하야곰 向上心이 일어나도록 해주엇스면 합니다 그러한意味에서 審査委員에 敎育者가만히 參加되여잇는것이 더욱조흔成果를 내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本校의多數參加와 最好成績을自期

第一高普校長 和田英正

作品審査는 아모 遠慮업시 하실줄 압니다 마는 자칫하면 學生들을 落望시키는수가 잇습니다 前에도 或 이런 展覽會에 參加시켜보앗는데 審査水準이 급작스리 노파지기도하며 나서 지기도하야 도모지 基準이 서지안흘것 갓습듸다 그러한일은 絶對로 업슬것이라고 미덧습으로 우리學校에서는 今番第一回부터 조흔成績을 어드라고 努力하고 잇습니다

手腕가튼것은 明年度의 第二回展覽會에 出品할것을 지금부터 準備하라 합니다 事實이만한 準備가 잇서야만 조흔作品이될수 잇스며 水準도 向上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學校에서는 積極的으로 支持하며 參加하랍니다 그리고 조흔成績을 어드라고 努力中입니다

제 자랑가트나 成績도조호리라고 생각하고잇습니다 이러한展覽會나 또는運動大會가튼것이 잇슬때마다 나로서는 늘生徒들의 自己陶醉를警戒하고잇습니다 잘못熱을 過히내면 다른工夫에妨害가잇고 또 그것이專門化되여버리므로 中學敎育의本意에 버서날危險이 잇슴으로 늘希望하면서도 熱心히實力을發揮하도록 指導하고잇습니다

美術傳統의樹立과 情緒敎育의一翼

養正高普校長 安鍾元

貴社의 學生美術展覽會는가장意義잇는 事業이라고 봅니다。文化의 모든部門이 그러하거니와 美術이 더욱 뒤떠러저잇는 우리社會에서 이러한事業이 만히 잇서야 할것은 勿論입니다 이러한 機會에 보담더 水準이 向上하고 發展하여야겟습니다

元來 美術이라 하는것은情緒를 살리는데 必要함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學生美術이라함은 이情緒敎育의 一助가되는것이므로 우리敎育關係者로서는 더욱 今番 展覽會를 聲援하지 안흘수업습니다。

한가지 審査하시는분들에게 附託하고시픈것은 審査水準을 專門家的眼識으로 노피하지말고 좀더水準을 全體的으로보아 달라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學生中에서 天才的인 美術家를發見하고 培養하는것도 조치만 아페서말한바 情緒敎育이라는것을 머리에 두어주엇스면합니다 그리하야 同展을거듭함을따라서 貴社美展이 朝鮮의美術의 傳統을 세우도록 되리라고 밋습니다

落望치안케 寬大한審査

進明女高普 李世楨

우리學校에서는 積極的으로 參加하라하며 지금準備에 바뿐中입니다

時期가 너무 切迫한 感이잇서서 各學校의校內事業과 重複될 念慮가업지다 안흘가합니다

審査委員

高義東 崔禹錫
林學善 金周經
張勃 李雲貞
鄭嬉魯 金貴仁
文錫五
(無順)

美術界의不振을 打開할基礎事業

香塘 白潤文

學生美術展覽會는 아프로 우리美術界의 일군을 길러내여 不振을打開해줄 基礎事業이라고 봅니다 美術에關心을 가지고잇는學生들에게 한가지 付託할것이잇습니다 美術이라 하는것은 다른美術과가티 素材를 그냥조하우에옴겨 놋는것이 아니라 素材의個性과 習性을 自己의技術에 따려서 創造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아즉은 그림自體의 美를찾기보담 그림속에 나타나야만할 自己의 個性과 素材의 取捨를 主要하게 생각하고 나아갓스면합니다 事實우리로서 至今의 第一困難을 當하는것은 詩人의詩想이 枯渴하는것과 가티想이枯渴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工夫하랴면 그림만그리는것이 美術이다 하는생각을 버리고美術以前의工夫를 힘써야할것입니다 비록 그림우에 나타나는 빗갈이 素材의빗갈과 달르다 하더라도 그곳에獨特한個性이 살고 創意欲이 숨어잇다면 그것은 아프로 發展을 約束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今番 學生美術에도 나로서는 이것을 注目하고차지라하며 큰 期待를 가지고 잇습니다。

東洋畵를 西洋畵보담

齋洞公普校長 朴勝斗

從來에도 이러한 事業에參加해보앗고 가서보기도 여러번 하얏습니다。단지저로서 第一遺憾으로 생각한바는 出品된 作品들이모다 西洋畵를 본듯이요 東洋畵는 全然 차저보지 못하얏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模傚"畵가튼 것으로 좀더 科學과交涉이 가까워질수잇는 作品이업는것이 섭섭 하얏습니다 今番은 이러한것이 만히出品되엿스면하고 바라서 마지안습니다 이學校에서도 지금準備하고잇스며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熱心내고잇습니다

寫眞說明 (上) 第一回審査委員會 (下) 作品搬入光景

連載野談 (二五) 布囊記 (不許轉載上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룰캐든총각 (十一)

진평대왕께서 별안간에 속이 눈힐이 업느냐는 말슴에 선화공주는 물롱 왕비께서도 크게 놀라섯다。

그래서 선화공주는 다만 어리둥절한 태도로써 미처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왕비께서먼저 그 놀람 괴색대로

『상감마마! 지금 말슴이 어인 말슴이온지。매우 놀라운 것을 알외오。』

하고 진평대왕의 긔색을 살피엿다。

진평대왕께서는 왕비께서 물으시는 말슴은 대답을 아니하시고 오직 선화공주를 향하사 위엄한 옥음으로써

『웨 대답이 업서? 네가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엿는데 마음대로 행한것도 큰죄。그런짓을 감히 행하고도 바로 대답하지 안는다면 그것은두번 짓는죄。그리고 그속이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모를 속이고 또한편으로는 임금을속이는것。그러거니 사람으로불효、불충。두가지큰죄를 짓고 능히 세상에 용납할수잇슬가 호옹。어찌다가 잘못한일이잇거니 그잘못된것을 속이지말고 다、말해!』

하시며 선화공주의 대답을 재촉하셧다。

이때 선화공주는 그부왕의말슴이 과연 청천의 벽력과 가튼 말슴이라 어안이 벙벙하야 어찌할줄을 모르는중 또한 진평대왕께서 준엄한 어조로써대답을 재촉하시니 더욱 황황망조하야 더욱 주저하다가

『아바마마! 과연 속인 죄가 업삽거니 어인 분부시온지。황송할을 알외오。』

하고 선화공주는 두눈에 눈물이 어린채 머리를 조아며 속인일이 업는것을 변명하야다。

『옹 속인일이 업다면 그만큼 긔특한 일이 업겟지。그러나 네가 밤중이면 대궐밧그로나가서 놀다오는곳이 잇다하니 어찌해 이런 해고망칙한 일을하여 이런짓을 네 마음대로하얏스니 이것이 속인일이아니고 무엇일고?。』

하시며 진평대왕께서는 진로하신 음성으로 그고이한 소문을 폭어내기 시작하섯다。

선화공주는 너무나 긔가 막혀서 어찌할줄을 모르고 왕비께서도 창으로 뜻이닌 말슴이라 놀래거리는 가슴을 억지로진정하시면서

『상감마마! 그것이 어인 분부시온지。참으로 놀라옵나이다』

하시고 이어 선화공주를 향하사 떨리는 목소리로서

『공주아기! 참으로 그러한일이 잇섯든가。이어인 말슴?。』

하시고 선화공주의 긔색을 살피시며 진평대왕을 대신하사 대답하기를 재촉하섯다。

선화공주는 그말을 듯고 처음에는 너무 놀란 생각이 지나 긔가 막히엇다가 나중에는

『옹 아바마마의 말슴이 분명 까닭이잇는 말슴。내가 어름할것이 아니고 이말슴의 출처를 밝혀여야 할일。』

하는 생각으로서 얼굴비츨 바로 꼿꼿하며

『아바마마! 신(臣)의 허물이 잇다하오면 따허물을 드는것은 혹시 모르압는일。밤중에며 궐을 나가 놀고 도라온다는 분부。과연 천지일월이 변명하야 줄 애문소문。밤에는물론이압고 비록 낫에 먼고출입(뒤깐출입)을 하올때에도 반드시 늙은 녀관을 좌우에세우고 젊은 녀관을 전후에세웅이 아니면 몸을 움직이지 아니한것은 일직 아바마마께서와 어마마마께서 녀자의 줍입하는 례의를 하교(下敎)하압신것을 기피 명심하와 본바드려하압는것 이압거늘 허물며 밤중에 동서를 아지못하압는 대궐밧갈길 터구나 놀고오는 곳이 어디이오릿가。이것은 신(臣)을 불효녀의 어뒤목숨을 더러운 죄명으로 죽이려는 시긔의 말슴이 이 말슴의 출처를 일월가트신 아바마마의 성총으로 밝키여 주시기를 알외오。』

하고 선화공주는 도리혀 그말의 출처를 밝키어 줄것을 청하니 그긔색이 냉냉한것은 마티 서리아침과 가티차고 그말하는 음성이 쟁쟁한것은 마티 옥을깨트리는것과 가티 명랑하엿다。

진평대왕께서는 선화공주의그 똑똑한 긔색과 조리가 분명한 말슴을 드르신뒤。

『그래 그런일이 업서?。』

『죽어도 업는줄 알외오。』

『또속이는 말이지。』

『죽어도 업는줄 알외오。』

『자! 이것을봐! 이런소문이 분명히잇거늘 그래도 나를속이는것이 업다해。』

하시며 진평대왕께서는 긴조희장을 선화공주아페 밀어내노시엇다。

新日本의傑作品

型은싱거ー미싱마同一

가격은舶來品半價!

陸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奬

海軍省御用 各女學校採用

登錄 商標 國産 蛇の目 미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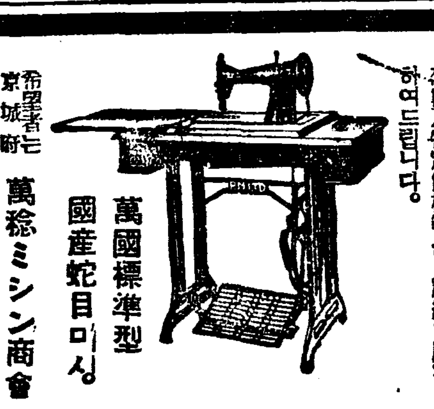
躍進日本!의霸者

이數年來顯著한發展을하고잇는 躍進日本의工業은、文字그대로의 進步發展의結晶으로서 世界的驚異를 밧고잇는 我國最初의本格的!!國産蛇目재봉틀!!을生産하게되얏습니다。

國産 蛇目재봉틀은 萬國標準型을 採用하고잇는故로 모든部分品이 世界各國에서 마음대로 살수잇는것은 勿論、舶來品과比較하야서 털끗만한遜色도업고 더구나、價格도半價로 되얏으로 只今은全世界를壓倒하야『작고도 優秀한世界第一』이란 定評을밧고 멀리海外各國에까지 輸出이 急速한파쉬를볼이고 잇습니다。

東京 大阪의 本工場에서는 年産額二百二十萬圓에 達하고 從業人員四百餘名只今은 自他가共認하는 東洋唯一의 미싱製造會社로되야잇습니다。

全鮮進出를目的하고 一郡에一店을標準하야 代理店을募集 하고잇사오니希望區域를申込하시면年賦上樂想敎及特定價格等을 詳細히回答하여드립니다。



萬國標準型 國産蛇目미싱

希望者는 京城府 萬稔ミシン商會 代理店係로

現在各代理店

黃海道沙里院 吳得龍
黃海道延安 李在原
咸南惠山邑 朴宗洙
黃海道海州 崔昌壽
全北南原邑 朴琪永
黃海道甕津 洪玫約
黃海道信川 金錫謙
平南平原 李一枝
平南江西 朴達文
平北鐵山 李萬鉉
黃海安岳 金秉律
京畿道江華 高必書
慶北金泉 朴聖鋼
尙州郡邑 朴容動
慶南晋州邑 二申商店
京畿道水原 河相奎
黃海道松禾 李基元
慶南昌寧 崔泰世
慶南宜寧邑 周時丸
固城邑 千泰洪
京畿道安城 崔
論山邑 金貞漢
咸北吉州邑 梁錫煥
咸南北靑邑 全竹修
黃海道南川 平山ミシン商會
京畿道開城 尹泰文
忠南禮山 李泰敬
慶北榮州邑 安正錫
君里邑 吳達書
全北全州 白南泰
全北扶安 金在根
全南光州 光州ミシン商會
京畿道汶山 鄭錫皐
平北碧潼邑 金榮五
全南長興邑 朴必煥
江原道長箭 李尙善
咸南咸興 董信顯
江原道原州 安鍾哲
平南勝湖里 安輪杜
全北[illegible] 王恩琛
平壤 朝鮮ミシン商會
慶南密陽邑 金采圭
京畿道[illegible] 李仁植
江原道[illegible] 朴泰鎬
慶北安東邑 趙順悅
洪川 元千吉
慶北榮川郡 鄭元植
咸南端川郡 金東煥
黃海道谷山 谷山ミシン商會
平南鎭南浦 李信權
慶南統營 李大任
江原道伊川 楊學藩
全南康津 世信洋服店
高興 朴魯順
醴泉 黃在宇
太田 高一謨
平北新義州 李明和
慶南蔚山 金正宰
京城 具聖澤
奉天 黃金河

資本金百萬圓

東京 大阪 帝國ミシン株式會社

朝鮮總代理店 萬稔ミシン商會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電話本局(2)四五八三番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前町一〇

大阪支社 大阪市東區心齋橋筋南久寶寺町

各地支社 名古屋、靜岡、橫濱、神戶、京都、靑森、甲府其他

博士創製 털나는藥

▼田中醫學博士方劑

▼說明書 無代進呈

田中醫學博士의 創製인 털나는藥フミナイン은 毛髮의發生을促進하야 그脫落及지게미를防止하고、卽頭頭、눈섭、수염、腋毛、其他人體要毛의 稀薄한것을 튼튼케하고 微細한 毛根이라도 털나는藥 フミナイン의 發毛素로 漸次生長식히요 또禿頭病에依하야 毛髮이脫落 禿頭脫落을 豫防하고 또 이 諸病에 原因한 禿頭脫毛에 對하야서도 病菌을 殺滅식혀서 그와 갓치 털을나게 하오。

●대머리●젊은대머리●털성긴대●脫毛●헌어털빠진대●머리쪽지상한대●눈섭성긴대●男女의꼭잇슬곳에털업는분……은곳다맘고곳使用하라

毛生藥 후미나인

フミナイン價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五圓五十錢、送料內地十二錢、萬一品切時는 代金添付左記發賣元에注文하라、卽時送藥함。

(全國藥店에잇슴)

模造品만흠 꼭フミナイン이라指名하시고買入하시오

發賣元 東京市芝區田村町四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三一八三三 東京藥院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六 振替大阪五八八番 東京藥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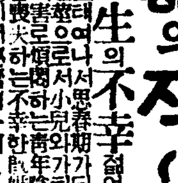
淋疾 蔘茸五淋錠

淋疾은慢性과副感染菌을따라各各다릅니다 淋、血淋、膏淋、砂淋、勞淋을五淋이라하며 甲藥이乙에無效하고乙藥이丙에不適한事實은 말할必要도업습니다 本劑는人蔘에多數漢藥과强力殺菌劑를配合한 高貴藥으로 淋菌은勿論하고 淋毒을消去하는 偉效的魅力을가진 本劑를試用하시요(無代說明書進呈)

定價 一圓 三圓七十錢

全國有名藥店에 無售品일時는 本舖에 注文하시압

朝鮮靈藥研究所 京城府大和町二丁目 振替京城一二三四六番



生器의적은분은 一生의不幸 젊어슬때治療하라

男子로태여나서 思春期가되여도 生殖器發育不全의 小兒와가티적은것은、遺精、夢精、早漏等 害로 惱悶하는者、手淫의害로 靑年期와人生의幸福을 失하는 不幸한 緊張力업는 初老者마다、커지고性力旺盛하여지는 自宅에서秘密히 施行할수잇는 專賣特許의 最新强大法 實物을 宣傳하야 無代進呈의便法이잇다 只今곳 葉書로 申込하면 圖入說明書見本無代進呈

本國唯一專賣特許 東京中野區東山町三六 眞空療法研究所

ヘチマの精

美晶크림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一丁目 大川盛進堂

和暢한봄날에 生氣잇고부드러운 살결의主人公은 餘裕압헤노허잇는 美晶크림입니다

演藝

劇藝術研究會의 五週年記念公演
來二十九日・三十日兩日間

시내 인사정(仁寺町) 태화여자관(泰和女子館)내에 잇는 극예술연구회(劇藝術研究會)에서는 금번 창립오주년긔념공연을 마지하여 일대긔념공연을 시내 부민관(府民館)에서 한다는데 오련 어려운 력사를 가지고 꾸준히 극문화수립에 노력하고잇는 동회이니만치 또 레퍼-토리가 조선문화사상 불후의명작 춘향전(春香傳)을 류치진(柳致眞)씨의 솜씨잇는 각색으로 연극화햇스니만치 더한층 인긔는 비등하여잇다는데 더구나 등장인물이 백십여인이오 오련 시일을 두고 맹련습을 계속하여 연기도 능숙하야 연극「춘향전」으로써 조선연극사상 류례업는 긔념공연으로 한녀름동안을 이에 준비하여 신량이 엄습한 이 가을 연극씨-즌을 긔하여 상연하게되기때문에 종래의 연극과는 질적으로 일대비약을햇스며 의상이며 장치 조명등에잇서서도 또한 그시대것을 민속학자 송석하(宋錫夏)씨의 고증으로 제작하엿기때문에 별문차오가업다.

시일(時日)은 오는 廿九일과 卅日일량일동안 매야 오후여섯시반부터이라하며 卅일낫에는일반의 편의를 도하기위해서 낫시부터도 개연한다고 하는데 입장료는 일반오십전 학생사십전 주간(晝間)은 사십전균일이다

『朝光』讀者優待

조선연극사상 유례업는 연극「춘향전」이 만히대망리에 공연을 하게되다함은 별항과갓거니와 본사출판부발행 조광(朝光) 애독자에게는 갈트잉십전식을 할인하여 일반오십전을 사십전 학생사십전을 삼십전으로 주간(晝間) 사십전균일을 삼십전으로 입장케한다는데 애독자우대할인권은 조광(朝光)十월호 목차(目次)뒤 지에 부처잇다고한다

라디오

二十五日(金曜)

◇午後六時 노래공부(一) 一、애기각시…柳基英曲 韓萬金 編 二、너왜갓느냐…同 閔吉宣 編 三、달마중…洪蘭坡曲 尹石重 編 朴景嬉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實演兒童
◇同六時三〇分 講演「少年과映畫의影響」 金相洛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八時 伽倻琴併唱 一、短歌 公道難 二、唱歌調 沈淸歌 成錦花 鼓手 池龍九
◇同八時二〇分 (東)토-키-音樂 一、青空……레파-르作曲 二、캐래반……하이만作曲 -銀座쭈스試寫室로부터-
◇同八時四〇分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배다라기 三、寧邊歌 四、긴난봉가 五、자진난봉가 李蘭玉 鄭錦桃
◇同九時 古談「血流三日」 金瀏雲

第一放送
◇午後六時(廣)童話 久留島武彥
◇同六時二五分 (名)講談 岡部次郞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 (東)新內― 富士松佐賀尾
◇同八時二〇分 (東)토-키- 銀座쭈스試寫室에서中繼
◇同九時 (大)浪花節 東天晴、東天紅

二十六日(土曜)

◇午後〇時五分 레코-드合奏
一、레코-드合奏 가、메누엣트……뽀-리作曲 나、裏葉의精……宮井守成作曲 다、가을비나리는밤…高橋功作曲
二、끼타-合奏 가、메누엣트…모-차르트作曲 나、까보스트……빽 作曲
三、레코-드合奏 가、세레나-데……마츠키作曲 나、봄소리……라모-作曲 다、行進曲……高橋功作曲 만돌리나-라・데・소울
◇同一時一五分 常識講演「가을엔워얼이빠지나」 金英鎬
◇同六時 노래공부(二) 一、애기각시…柳基英曲 二、너왜갓느냐…同 三、달마중…洪蘭坡曲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朴景嬉 外實演兒童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解說
◇同七時三〇分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개성난봉가 三、한강수타령 四、사발가 五、흥타령 六、노래가락 七、창부타령 申海中月 申忠根 金晶根 細笛 奚琴
◇同八時三〇分 舞臺劇 -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 『春香傳』中 第三幕 第一場五里亭 第二場東軒
―配役―
李東令…丁南希 春香…朴[illegible] 房子…吳太[illegible] 香丹…金任[illegible] 新官使道…金昌[illegible] 出演 劇藝術研究會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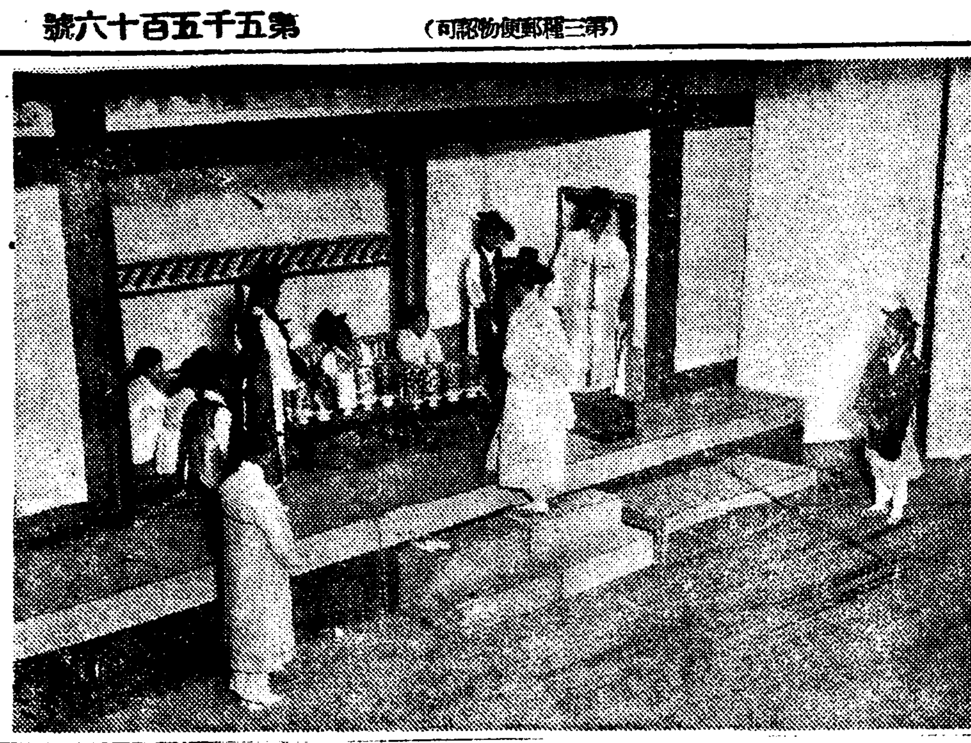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 (東)[illegible] 丸山順太郞
◇午後〇時五分 (東)野球
◇同六時 (東)노래공부 平井美奈子
◇同七時三〇分 (東)謠曲 觀世鐵之丞
◇同八時一〇分 (東)箏曲
◇同八時二五分 (京)映畫劇 第一映畫撮影所
◇同九時 時事解說

◇同七時三〇分 懸賞라듸오小說發表(三等當選)「종소리」 崔琴 制作 沈影
◇同八時三五分 名歌曲의밤 一、「[illegible]」 二、「[illegible]」中一節 三、「[illegible]」中一節 指揮 申左暢 效果 宋[illegible] 同人會
◇同九時五分 演劇「靈山念佛」 朝鮮正樂傳習所
―나오는人物―
宋在善 梁伸浩 沈玉度 金淳植 李壽鎭 朴之重 白瑥植
◇同一〇時 朝鮮交換放送 ―京城으로부터― 一、短歌 瀟湘八景 伽倻琴併唱 二、唱劇調 春香歌中獄中歌 李素香 鼓手 丁元燮

二十七日(日曜)

◇午後〇時五〇分 歌曲演奏 ―京城으로부터中繼― 一、羽調初數大葉(男唱) 二、羽調二數大葉(女) 三、羽調三數大葉(男) 四、羽調頭擧(女) 五、騷聳(男) 六、牛葉(女) 七、界面二數大葉(男) 八、界面頭擧(女) 九、言弄(男) 十、平弄(女) 十一、言樂(男) 十二、羽樂(女) 十三、編樂(男) 十四、編(女) 十五、太平歌(男女合唱) 歌曲 漢陽居士一同
◇同六〇〇 兒童劇「沈淸」全三幕 百合어린이會 指揮 金順禎 效果 效果班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尹乙洙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農村講座 池井僞治
◇同一一時五〇分 (東)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리그戰
◇午後三時 秋季競馬實況
◇同六時 (名)이야기 大町文樹
◇同七時三〇分 (大)듀-스演藝 紅葉狩
◇同七時五五分 (東)所作音樂
◇同八時四〇分 (東)歌謠曲 伊藤久男
◇同九時 (東)라듸오小說 御橫公前



歌劇 春香傳 超盛況의 第一日

★曆★
九月廿六日(土) 建丁酉八月小(十一日) 辛亥・金・女・滿
●祭祀移徙裁에宜함
●秋分二十三日(舊初八日)
●寒露八日(舊二十二日)

讀者社交室

▲本紙社交室에所載한 藥種商講義錄이必要하오니 價格을左記住所로通知하야주시면 고맙겟습니다
平北宣川邑川南洞三五一 金琦業

▲岩波哲學辭典(增訂版) 同小辭典 同文舘「哲學大辭書」(五册) 織田得能「佛敎大辭典」(縮刷版) 同縮刷版 右記書籍을 所有하신분讓渡하시요
咸南元山府南村洞五一 金東一

▲生은某公立女高普를 卒業한 二十歲의處女로서職業을求함니다 何處의何事를勿論하고 한번해볼決心이오니 讀者여러분의로힘수잇을만한일이잇거든 社交室로通知하여주시시요 (求職女)

▲求婚 二十七歲된次男이온대 十一歲時에十七歲나된 女子와結婚하야舊風에 할수업시四五年同居後離婚하고至于今獨身生活로學業을 닥가온 無職의 靑年이온대財産數百石입니다! 相對者는意志가堅固한女子人物普通女高出身十八歲以上二十五歲以內로 有意하신분은 本社交室로 住所를通知하시면 遠近不問하고 仔細片紙後訪問하겟습니다
尙州一求婚者

▲電氣機械、器具等製作과修繕의技術을가진眞實하고 敎養잇는分과共同出資經營을 希望하오니文化向上과 社會奉仕를意圖하는信義잇는同志는 左記住所에通知하시요
江原道三陟近德區 丸金工業所 T生

▲黃宮山君 崇仁洞에서離別한後 東京가서藥書가잇슨後 一切消息이업스니 엇지되엿는지가近況과住所그리고 鋼根兄의住所를直接으로나社交室을通하야알려주게
大邱 O生

▲本報六月二十四日부터 七月四日分까지보내주시면 섭섭지안케謝禮하겟습니다 朝夕刊다보내주서야하겟습니다 또木馬雜誌一號하고 新兒童創刊號부터三號까지二卷一號全部보내주시면 섭섭지안케謝禮하겟습니다
京城府新井町八三 金相德

▲欲賣生에게問議하옵니다 貴下께옵서去七月二十四日 社交室을通하야發表하신 醫學書籍數種의原價及 讓渡價格을紙上或은本人에게로直接알려주시면 即時買得하겟습니다
義州郡古寧朔面三峰洞 朴殷大

▲大邱求婚女에게答함 저는二十六歲의男子이온대 貴者貴下의求婚記事를보고有意하야 本欄을通하야請婚하오니 有意어든左記住所로直接通知하여주시오
咸南高原郡郡內面松川里 張昌植

▲今春平壤女高普卒業時 늘금에對한 感想文을 中央三月號에 讀受할마음이 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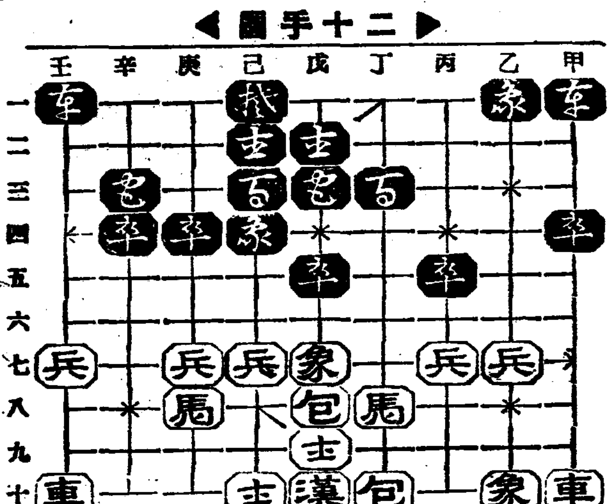
▲七月十七日 社交室欄에서「우엘스」世界文化史大系 上下全一册、小說「書」을 讓渡코저하신咸南北靑新浦湯泉 K生에게答합니다 速히册價와住所를 알니소서

▲八月二日貴社紙上에 記載된 流星貴兄에게말드립니다 弟는今春에 某中學을卒業하엿는데 藝術特히 映畫方面에關心을가지고잇는데 貴兄에喜報를듯고 狂喜를금치못합니다 同志가되여同許에同伴가될만하다면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신다면 기쁘하겟습니다
北靑郡居山驛前 李善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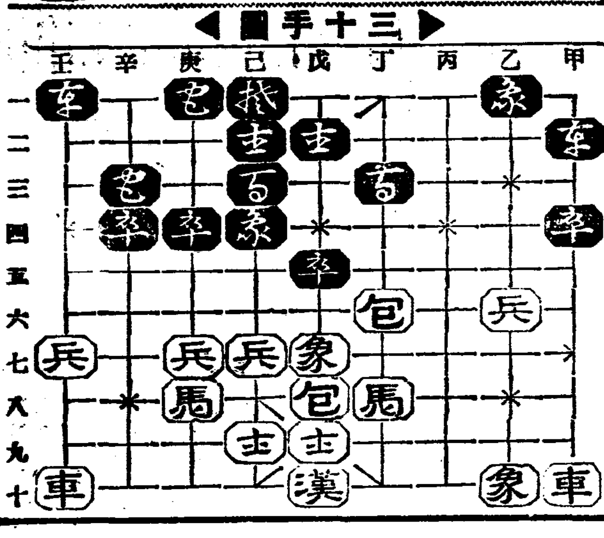
▲本人이菊池寬著現代小說「結婚の條件」을가지고잇습니다 讀者여러분中左記書籍과交換하실분이잇사오면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시요 곳交換하여드리겟습니다
久米正雄著「月より使者」
京元線福溪驛前 咸典

▲求職! 저는今年廿六歲의靑年으로 數年前에 市內某高普를卒業하고 外國에서 某大學을나왓습니다 中學生의家庭敎師職을求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소서 特히英語에는責任지겟습니다
市內茶屋町百十一番地 濕生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三)
甲先手 全于石 漢 李在鳳



◀圖手十二▶



◀圖手十三▶

甲一(五)—甲二 己十士—己九 戊三(包)—戊一 乙七兵—乙六 戊一(包)—庚一
丙七兵—丙六 丙五(包)—丁五 丙六兵—丁六 丁五(包)—丁六打 丁十包—丁六打卒

咸南에冷害도掩襲
燕麥은全滅狀態
豐山三水에만被害二萬町步
六萬災民에飢寒漸迫

【咸興】 함남도산지대의 농작은 금번에도역시 미증유의 흉작을 예상케하야 지나간 련삼년동안 초근목피(草根木皮)로서 겨우가는 목숨을 이어나가든 수십만 화전민들은 다시금 량식(糧食) 어들길이 암담한 상태에이르게 되엿다함은 이미 루차보도한바어니와 날이갈수록 판명되는그 피해상황은 더욱 혹심함뿐으로 주식물인 연맥(燕麥)은 거진전멸상태로서 지금부터 전후가순조로워서 수확한다 하더래도 전체평균하야 몇할가수는면치못할것이라고한다。

이제 이십사일형찰부에 들어온 삼수(三水) 풍산(豐山)량군의 피해상황만보드래도 량군모다 발아긔(發芽期)에는 근일개월반이나 계속한 대한발로 유아(幼芽)가극히 불량하야 내려오든바 성숙기이르르지난 십칠일부터는 긔온은 갑작히 빙점(氷點)이하로 내려평균령하 이상도의 한랭한긔후를 보우며매일서리(霜)가 내려서 작물는모다 랭해(冷害)로서 위축(萎縮)하야버렷다

연맥은량군에 피해면적이약이만정보나되며 아무리조케예상하야도몇할가수는 면치못할것이며 수도(水稻)도삼할소맥(小麥)도일할가은 면치못할사실로서 오륙만재민은 벌서부터 긔근의위협을받고잇다한다

災地江陵의煩悶
날개도친貸家料
四割乃至五割의增徵敢行
警察側嚴重取締方針

【江陵】 재지강릉에 대큰온 번민어생켜서 재민에게 뭇친고통을주고잇다 금번수재로 가옥류실도괴가 수재전의 가옥긔근에 박차를가하야 더욱이 상점몽점포정들은 실로기관이다 여긔에 긔재들어든 가주들은 수재전대가료에다가 사할내지오할의 증액을요구하며 어떠불응한다면 축출을 강행하는 재도잇다하야 물의가 분분다고하며이문제는 재지강릉의 경제부흥에도 다대한 지장이잇슬것이라하야 당국자의 주의한 취체가잇기를 바란다하며 여긔에대하야 요로의의견을 드른다음과갓다

嚴重取締方針
警察當局者談

그러한 불상사를 양조하는것은 재지강릉에 크나큰 문제로 크게유감이다 금후그사실을 엄밀히조사하야 선처할각오이다

惡德家主退治
某邑會議員談

나도 그런말슴을 드렷습니다 참으로 강릉보전에、큰문제인데 수재를 당한 재민을 구조는 못해줄지언정 도로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것이실로 유감 이올시다 내생각에는 응당 여사실에 대하야경찰당국에서도 조사를하야 선처할것으로 굿게 미드나 여하튼 이러한 악덕가주는 퇴치서키는것이 조흘것이라고밋습니다

九個所精米所休業
千餘從業員困境

【鐵原】 려리윤내에잇는 정미소(精米所)중에 아홉군데정미소는 금번여름부터 정조출회(正租出廻)가 업서 일제히 휴업을하고잇는중 여기에 종업하고잇는종업원 일천여명의 생활이 실로 말할수업다고한다 여름에는 각처로흥터저서 품파리라도 하여가며 근근생명을 이여나왓스나 요지음은 어대를물론하고 제일 곤난한 시기인지라 당분간 이 고개만넘으면 신조가나와 다시 사업을 복구할수잇스나 아프로 얼마동안 살어나갈길이 막연하야 일천여생명의 생활문제가재 못될려되는바이라고한다

建登、地正兩面서
百餘罹災民離鄉
살길차저羅津으로

【文幕】 금번미증유의 수해로말미암아 의식주의전도가 망연한 리재민중 원주군건등면(原州郡建登面) 에서 이십호팔십팔명지정면(地正面)에서 실호오십이명 합일백사십명이 라진(羅津)등지로 일자리를 차저가는 리주민은 지난이십일일、이십이일에나누어서 본군군속김창렬(金昌烈)씨와 동리기남(李己男)씨등제씨의 인솔로 다수석별리에 문막(文幕)을 떠나서 경성까지가게 되엿다한다

馬山正武館主催
南朝鮮鬪牛大會
本報支局後援

【馬山】 마산에서는 풍년추석에면 년중행사요 축산장려하는의미로 매년투우대회(鬪牛大會)를 개최하여 오든바 금번추석에도 마산정무관(馬山正武館)주최와조선、매신、군농회(朝鮮、每申、郡農會)후원아래 오는음력십팔일부터 사일간 구마산전구락부운동장(舊馬山前俱樂部運動場)에서 남조선투우대회(南朝鮮鬪牛大會)를개최키로되엿다 신청기일은 음력팔일 십륙일까인데 마산부 오동동 투우대회 림시사무소(馬山府午東洞鬪牛大會臨時事務所)로 신청하여달라고하며 상품은 갑등에 현금백원의 우승긔(優勝旗)등 이하오등까지라고한다 더구나 금번투우대회의 수입은 마산정무관(馬山正武館)신축비에 보조금으로사용하리라한다

故鄉의二世爲해
風琴一臺寄贈

【永興】 아는것이힘이라는『스로간』미테서 전조선이정말대중이교육에 불타고잇는것은 조선의 장래를위하야 다가티 흥열할바어니와 멀리 현해탄을 건너가서 품파리생활을하는 로동자들로 고향에잇는 제이세국민의교육문제에 관심을가지고 열성을 기우린다는것은 듯는사람으로하여금 더한층기운을돕게한다 구레에잇는 신월(新月)원방(元方)두동리는 원래 한촌으로서 읍내와 그리거리는 멀지안으면서도 문화정도가 너무도 저급하야 학령아동의 절대다수가 보통학교에도 다닐수업는것이 구레지방에서도 대표적 이라하겟다 이러하야 작년에 아우 신월간이학교(新月簡易學校)가 설립되엿스나 유지상불소한 곤난을 겪거오든터인데 그동리사람으로서 대판(大阪)과 경도、신호(神戶)등지에가잇는 로동자들이 우리고향에서 배움에굶주린 어린자제들의 교육사업에 힘을 한치겟는뜻에서 위선 시가백원이상의 풍금(風琴)한대를 사가지고 지난시칠일에 동교 교사 량해섭(梁海燮)씨를 방문하고대표자 김광열(金光烈)김영완(金永完)량씨는 전기의뜻을말하면서 기증하엿다는데 학교당국은물론 일반농민들이 감격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土兵의出沒橫暴로
農作收穫에支障
人質拉去、食糧强奪等等으로
物情騷然한撫順地方

【撫順】 동변도(東邊道)일대에근거를두고잇는 토병(土兵)들의대부분은 일만군토벌대의 철저한 토벌에 전멸되엿다고는하나 때잔되토병은 근거지를일코 점점 만철(滿鐵)연선부근으로 쪼겨들기시작하여 현하 무순현내(撫順縣內)에자리한 토병이수백명에달하리라고한다 이토병들은 대게 오륙명 내지이십여명식 떼를지어가지고 추야를틈타고하고 농촌으로횡행하면서 다소라도 여유가잇서보이는농민은 인질(人質)로잡아가거나 흑은 농량(農糧)을하탈코강탈하고 심지어 가축(家畜)까지라도 모략가는등 가진포행을 다하는사건이 련일되리를랏출고 이러나므로 무순현하농민등공중에서 비교적 여유잇는동포는 추수긔임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안주지(安住地)를 차저 시가지로피난하고잇는 동포호수가 이십일일현재로 사백여호라하며 도할수업시 원주지에 그대로남어잇는 농민동포들은 하로한시라도 마음노코 살지못하고 공포에 떨고 잇스며서 추수를 목전하고잇는데 밤이면 토병들이 습격할을 피하기위하야 인가에서 떠러저 잇는 수수밧가운데나 나무아래가튼테나아가서 로숙(露宿)을하면서 가을밤 추위에떨고잇는 정형이야말로 뜻잇는인사로하여금 동정의 눈물을 자아내게하는비 농가에서 일년내 제일긴요한추수도 무지하고 잔인한 토병의 출몰로인하야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날에는 실로 무순현하 수천농민동포의 사활문제일것이므로 금년추수는 크게주목되는동시에 농민들은 이마쌀에 주름이피지못하게 공포에싸여엇다고한다

流動警察隊編成
秋收現場을保護
十月一日부터實施

【撫順】 무순현하 농민동포추수문제는 별항과가티 딱한사정에 얼케워서 극도로 념려되는바농민들이 농작물을 마음대로 추수치못하게되다면 농민동포는필연적으로 치명적타격을 밧게될것은물론 직접간접적으로 무순시민동포에게도 불리한영향(影響)을된지게 되리라하야 무순사회유지 몃사람은 면칠전민회에모혀서 추수문제에대하야 대책을강구하엿스나 별도신통한안을작성치 못하고 일만군관헌(日滿軍官憲)에 진정하여 무장관헌의현지보호라도 밧치못하는한 추수는 극난하리라는 의견뿐으로 헤어젓는데 그후민회 리사류홍종(劉弘鍾)씨와 금융회리사 호성태씨가 무순경찰서에 현지보호를 진정하엿든바 경찰서의 부족이한 사정상 농촌현지보호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하는말을 듯게되여 일반농민 동포들의열렬한긔대에 어그러지는듯하드니 근일 이문제에대하야 특히호성태(扈聖泰)씨는 가전성의와백절불굴의 정신으로서 부절히요로당국에 진정을 거듭하여오든바 래시월일일부터 일개월간 무순경찰서에서 이십명의 무장경관대를 편성하고긔관총을 휴대케하야류동경찰대(流動警察隊)를 편하농촌에 주야로순식으로 출동케하여 농민동포의 추수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게되엿다하야 일반피난동포도 원주지에 귀환하여 추수하게될것은 물론 원주지에 남어잇는 동포들도 안심하고추수하게되리라하여 일반은 큰긔대를 가지고잇다 고한다

地方人事

▲李銘淳氏(昌原郡鎭田面長)新任人事次 本報馬山支局來訪
▲金承極氏(鶴口金融組合理事)新任人事次本報鶴口支局來訪
▲尹察奎氏(南陽靑龍公立普通學校訓導)同上
▲金翼鎭氏(前靑陽郡屬產業技手)洪城郡屬赴任人事次本報靑陽支局來訪
▲康永甫氏(同上)保寧郡屬赴任人事次同上
▲康鎭奎氏(靑陽郡守)水害視察次郡內各面出張中

宜寧에도千二百點
災害民에게配給
本社經由救濟衣類

【宜寧】 경남의 수해는 남조선일대의 잔인하야 참아보지못할 그참상은 나날이지상을 통하야 아는바이어니와 경남의녕도 의령군 본관화지류에 사여잇는 지역이만큼 그피해는 가히 몹쓸드린 형용할수업스며 날시는 점점차워지는데 집일코 의복일는 리재민은 가설의토막에서 사람의 생활에서버서난가 사로부터 의복필요에여 본지국에서는 당국과협의하야 재해지에 발송하엿는데 분배는 다음과가티하엿다

宜寧面九九點 富林面一一〇點 鳳樹面七二點 正谷面二五七點 芝正面二七七點 洛西面二四〇點 林面九六點

啓蒙學生赤誠(白川)

【白川】 연배군화성거문학교(花城學藝學校)의생도들은 남조선수재리재민을위하야 그들의따뜻한 순정으로모혼돈전금이원오십사전을 지난이십사일에 본보배천지국에 차저와 송금을의뢰하엿다한다

幹部人選問題
圓滿히解決

【木浦】 목포소방서 조두 삼전(木浦消防署組頭森田)씨가 사임한후 일개월이상을 두고 조두인선문제로 목포사회의 물의는 자못 비등하얏스며 부조두이하 이십이명 간부측에서는 내홍(內訌)이 일어나 총사직서를 제출하는등 일시 일반사회의 여론을 확긔하든 목포소방서 간부조직의 문제는 지난이십일일 드뒤여 원만해결되엿다는데 조두에 전목포경찰서장 중도건삼(中島健三)부조두 이목정길(二木正吉)제사부부장 김종식(金鍾植)씨등이 당선되얏다한다

救濟寫眞畫報—

(上) 鎭南浦女性同友會에서蒐集한同情救濟品 (鎭南浦)
(中) 本報淸津支局에서救濟品發送光景 (淸津)
(下) 災地達谷에서擧行된罹災死亡者慰靈祭式場 (注文津)

今日 二十六日

午前九時부터
「公設『그라운드』」에서
第六回綜合體育會
◇主催 關西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元山
第五回全朝鮮脚戲大會
▲時日 十月一、二兩日
▲場所 元山中里二洞海岸
◇主催 大元俱樂部
◇後援 元山體育會 朝鮮日報元山支局

愛慾의彼岸 【110】
李光洙 作
金康穆 畫

혜련은 잠깐 주저하다가 준상이가 하라는대로하엿다。도저히 이 경우에 준상의 청구를 거절할수는 업섯다。

『나는 저이의 사랑을 못 갑하들이는것이 슬프다』

혜련은 아까모양으로 봇나무 가지에 한 팔을걸고 한편어깨와 엽구리를 봇나무에 기대고 고개를 약간 들어서 달ㅅ빗 바든 비로등쪽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엿다。

혜련은 가끔 자긔가 준상의 스케치 대상이 된것을 이저버리도록 여러가지 생각에 잠겻다。잇다금、

『고개를 돌리지마세요』

하는 준상의 말에 제가 지금 그려지고 잇는것을 깨닷앗다。준상의 스케치 조회 우에 연필 달리는 소리가 싸악싸악 하엿다。

바람이 불기시작하엿다。힌구름ㅅ장들이 산ㅅ골작이에서 일어서 산을 넘기시작하엿다。실로 순식간의 변화엿다。구름ㅅ장이 달을 가리우면서 지나갓다。일종 음산한 공긔가 돌앗다。혜련은 피가 어느듯하고 머리카락이 쭈뼛거림을 깨달앗다。더 참을수업는것가탓다。더구나 달이 구름에 가리웟다 나와다할때마다 천지가 어두웟다 밝앗다 하고 바람ㅅ결이 휙휙 지나가는것이 혜련의 마음으로는 당할수업스리만큼 굿세고 무서운 풍경이엇다。

『추어요。전 그만 들어가겟서요』

하고 혜련은 보ㅅ나무에서 몸을 떼엇다。

하늘과 산마르태기로 달리는 구름은 더욱 빨랏다。졸던 봇나무들이 고개를 흔들기시작하엿다。굵은、빗방울이 뚝뚝 떨어젓다。

혜련은 몸을 떨면서 준상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하야 걸엇다。

준상은 스케치하던것을 손에 든채로、화색도 손에 든채로혜련의 뒤를 따랏다。혜련이가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발을 멈추고、

『아제 어디로 가세요?』

하고 준상을 위하야 근심하엿다。

섯섯한 굵은 빗방울이 휘혜의 양철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가 마치 말 달리는 소리와 가탓다。

『제 걱정은 마서요。잘데업스면 용마소로 가지오。이 집 허깐에서라도 자든지。추우신데 어서 들어가서요』

하면서 준상은 혜색을 처마미테 내어던젓다。

준상이가 어듸서 자는가、하는것이 마음에 걸리면서 혜련은 잠이 들엇다。혜련은 준상이가、서반아 그림에 잇는것모양으로 제 창 밧게 와서 무릅을 꿀코、

『혜련씨、혜련씨』

하고 부르는 꿈을 꾸엇다。

혜련은 꿈을 깨어서 창밧글 바라보앗다。저가는 달빗체 산그림자들이 분명하게 누어잇든것이 보엿다。하늘에는 구름이 업고 별들이 빗낫다。

『그이가 어디서 밤을 지낫슬까。용마소로 갓나?』

하고 혜련은 회중전등을 켜서 시계를 보앗다。네시방 문임은 세상 모르고 자고잇섯다。

『비로봉 해뜨는 구경을 해야』

하고 쓰웨타에 외투까지 바처입고 조고마한 성경책 하나를 들고 단장을 들고 살몃이 집에서나왓다。주인ㅅ집 헤파드가 인ㅅ긔척을 듯고엥마디짓다가끗첫다。

혜련은 수학려행 왓슬때에한번 걸어본 긔억을 더듬어서비로봉을 향하고 칙칙한 길을걸어올라갓다。길ㅅ가에 우뚝우뚝 선 늙은 젓나무가 가끔 무서운 짜인든모양으로 보엿다。산머리에 빗긴 달ㅅ빗체 봇나무들의 굵은 몸이 창백하게 번뜩거렷다。

바람은 업고 칩기만 하엿다。

혜련은 제 발ㅅ자욱 소리를무섭게도 슬프게도 들으면서 길이끄는대로 올라갓다。무시무시한 감정에 정신을 통일하기가 어려웟다。더구나 좌우쪽이 다 허공인 말잔등 가튼데를 돌칭개를 밟고 올라갈때에는 탐다리가 와들와들 떨리도록 무서웟다。혜련은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을 진정하려고하엿다。

朝鮮商美社
建築設計店內裝飾 秋節美術造花具
京城府南大門通一ノ一二一 電話本局②四〇〇八番 振替京城二五四八番

山下テント
金山大倉町
カタログ進呈

조흔家庭工業
最高의會社·意義잇는大事業進出
第一 第二 ... 株式會社

桃屋의 花らっきょう
秋節食卓에 香味爽快
各데파ー트及食料品店에잇소

京畿道特產
年產四千石
楊州栗
京元線議政府
米穀卸 宋五男商店

朝報案內

職工募集 (京城府內居住者에限함)
希望者履歷書持參九月二十八日午前中熊平商店鋼鐵家具工場로來談하라
京城府鷺梁津驛前 電話④一二八一

齒科醫院讓渡
京城驛附近、月收入四百圓以上 詳細八本局四九一四番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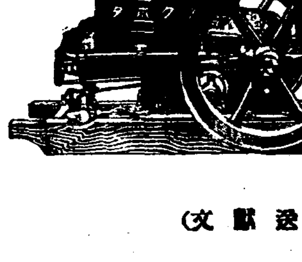
社員
採用中學程度履歷書持參午前中來談할事
鍾路四丁目五九番地 日光堂藥品部

支局長募集
全鮮各郡에一個所式支局을設置코자支局長을募集함 信用잇는者의바라며履歷書二錢切手封入至急申込하라
京城府漢江通り 京城新聞社

植字工
數名至急入用要面談
京城府安國町一五三 中央印刷所

女子金錢出納係採用
高女卒業程度十八歲以上履歷書持參每日午後四時ヨリ六時迄ノ間ニ來談ノ事
南大門通一メ永保ビル新舘 オリムピアキャンデイストア

クボタ
石油 輕油 發動機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謝恩特賣
蓄音器景品附
自九月一日 至十二月末日



(文獻送呈)
全鮮總發賣元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2番 4784番

◎支局募集 (紙價一個月三十錢)
三錢切手添送하시면規定書를送呈함
京城府林町八二番地
中央時報社
電話(本)②三一四番 振替京城四五五五番

半島國語教育界의福音!!
總督府制定·教育會認定
朝鮮總督府 普通學校 國語讀本
標準朗讀레코ー드
各學年後期用第二輯發賣!
Columbia
콜럼비아레코ー드

京城婦人病院
癌科 라듸움科
院長醫學博士工藤武城 副院長醫學博士松本泰治 醫局女醫 李敬信
電本②〇四八二一·三八九二番·京城北米倉町九四

味の素 아지노미
려행에도「아지노모도」를 가지고가시면 음식맛을 잊지안습니다

東京海陸軍水交社御用
구루타민산나트리움 포함량
在來品 百分의七八·三一
아지노미 百分의九四·五七

全朝鮮一手販賣店·京城·平壤·和信·全朝鮮和信連鎖店

經濟解說

小運送의統制

朝鮮非合同業運命

李○○

×

昭和二年四月 日本通運業界의 「改善」에 關한 「合同」은 大資本의 偉大會社通運과 國際의 支配的勢力을 中心한 勢力으로과 中立業者 特히 朝鮮人業者의 向背等에 依하야 波瀾曲折이 만헛섯스며 現在의 國際通運이 設立되어 昭和五年까지 四個年間 朝鮮서 重大한 社會問題化하야 其間 賛反 妥協 脫退 復歸 再脫退 決裂 再復歸等 形勢續變하고 그러한 합비를 거듭하엿스며 京城、東京、大連의 三地를 巨하야 政治的交涉이 도한 뜻만하얏섯스니 이제 그 대강을 적어보면 다음과 갓다。

×

業者側의 反對方針을 알게된 通運과 國際의 各京城支店長이 內議를 거듭하고 昭和二年大月 合同計劃을 聲明하야 中鮮 十餘名業者를 案內로 合同의 하고 中立業者大會를 열엇이 五月에 着手하바 이때에 朝鮮人業者들에서 統制에 計 朝鮮業者親友會는 「一驛一店主義는 大資本의 獨占으로 朝鮮人業者全滅」 임이 明白하야 極力的으로 反對하고 社會問題로 이르키어 對抗하야 激烈하얏섯스나 鐵道當局이 業者를 說服하야 運合이 반드시 一驛一店主義가 아닌것이라 하얏슴으로 「朝鮮人業者에 壓迫、對抗」이 하라면 反對運動이 一層되고

合同에 參加케되엿스나 業者에서는 大資本家측에서 運合을 强行하게 되면 朝鮮人業者問題는 어로씨끄지 낫스나 그 다음에는 朝鮮人業者 側의 反對가 이러나서 二年十月에는 京城商工會議所 十大組合主催로 運合反對主義大會 三年二月에는 全鮮의 朝鮮業者大會를 열어서 運合反對 一驛一店主義에 依한 合同을 絶對에 不應하다고 決議까지하얏다。

×

日本內地에서 大正十五年 內閣 通運과 國際運輸의 合併說이 생기엇슴에 朝鮮運送界를 支配下에 두겟다는것이 問題가 되어 서로 困持하다가 朝鮮支配의 關係로는 우선 日本內地에서의

合同이 成立되면 朝鮮에서도 하기로하얏다는 [illegible] 生으로 다시 運合이 [illegible] 新社가 成立되어 [illegible] 이 鐵道當局이 運合에 參加 [illegible] 反對 [illegible] 人하야다。

×

鐵道局에서는 昭和四年九月末에 承認運送店制度를 廢止키로하고 三月末日 正式으로 發表하얏는데 새로이 指定運送人 制度(運合會社를 指定함)를 制定코 運合促進을 期하바 承認運送店制度는 同月로 廢止되엇다。

四月四日 承認運送店 總會에서는 非合同側이 猛烈히 鐵道局을 非難하야스며 補償金增額 問題는 運送側不肯으로 危機를 包含한채 委員會에 日發言

每年 運合反對가 내세우고 運合을 强行하야 [illegible] 合同派 正式으로 脫退하얏는데 非合同會社는 將來 營業에 不安이 잇다는 [illegible] 委員 六十名中 三十七名 中斷로부터 運合反對의 [illegible] 하얏고 一方 運合委員은 運合參加를 勸誘하야 白熱戰을 演하얏스나

運送界는 國際通運을 中心으로 中立業者間에 進行中인 運合에 對하야 代行權 其他를 附與할 方針으로 參加者에게 [illegible] 加入者가 [illegible] 五店(日本內地人 四百四十六店、朝鮮人 千六十三店、中國人 六店)中에서 千二百二十三店(日本內地人 三百三十八店、朝鮮人 [illegible]

入百七十店、中國人 六店)의 參加 申込이 잇섯다。이리하야 數로는 七割七分、貨物取扱으로는 七割八分에 達하얏다 運合不參加者에게 當局에서 하는것과 同樣에 準하야 現金으로 買收하얏다 高唱하면서 對抗策을 強하얏으나 最後에는 運運과 非合同이 和解하고 朝鮮運送同盟會組織하얏다。

—(계속)—

期正米繼續崩落

金融方面에서도 警戒傾向濃厚
比月初高價三圓四、五十錢低

正米取引은 中絶狀態

凶作에 低米價

日本內地豐作을 反映하야 期米界는 今日도 大暴落을 演하야 期取當限은 二十八圓卄錢으로 一場하고 百丁의 大崩이되엇다 이는 大阪當限低와 買方의 投賣를 招來한것이 아니라 一因이엿는데 仁川正米市場에서는 갑자기 寄付고 잇는데 意外의 期落에 正米取引은 中絶狀態이며 金融方面도 警戒態度를 濃厚하게 하고 있다。

期米低落幅

		卄五日前場	一日高價	比較
仁川	當	二八·五〇	三二·三〇	三·八〇低
	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當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前場期取先限低價二十七圓〇九錢을 六月先限高價三十二圓七十錢에 比하면 實로五百六十一丁의 暴落이엇다

正米三等低落幅

	卄五日	至日	比較
京城	二六·〇〇	三〇·二〇	四·二〇低
仁川	二六·二〇	三〇·〇〇	三·八〇低
群山	二六·二〇	三〇·〇〇	三·八〇低
大邱	二六·二〇	三〇·一五	三·九五低
釜山	二六·三〇	三〇·〇〇	三·七〇低
木浦	二六·〇〇	三〇·〇〇	四·〇〇低

一般農作의被害甚大

農家打擊豫想以上

今年의 農作被害는 主要作인 米作、棉作의 大減收를 筆頭로 粟、比較的 被害가 發生되엇는데 比較的 順調로 되고잇는 一般農作의 被害도 如左히 豫想되고잇다 即 第一 大豆作은 全朝鮮的으로 一割減收이오 粟은 北部作의 關係上 比較的 順調이엇스나 燕麥、亞麻는 모다 一割 減收가 豫想되고 잇다 同樣으로 南部氣候로 各地 二割程度의 減收가 豫想되다

比하야 二萬六千町이 增加하고 그交換農家數는 五十六萬四千七百五十六戶에 達하얏다 交換農家와 播種面積은 다음과 갓다

	播種面積	交換農家
大麥	二三·六〇	一四五·六〇三
小麥	八·七〇〇	一〇八·二三
裸麥	六〇·二	一〇·三一三
大豆	二五·一四〇	二〇·五四六
粟	一八〇·三二	一九·六〇
燕麥	一、四九	一、四六
合計	三〇·八三〇	五六四·七五六

佛蘭銀行利上

【巴里二十四日發商通】佛蘭西銀行은 二十四日公定割引利率을 三分에서 五分으로 引上하얏다

田作優良種

普及事業實績

田作改良計劃에 依한 優良品種普及事業의 十年度實績을 보면 播種面積은 十七萬七千四百四十七町五段으로 前年에

朝鮮의 薄荷도 大打擊을 바덧스며 菜蔬는 主産地인 南中朝鮮各地가 모다 決定的打擊을바덧다 또 果樹는 苹果가튼것은 二割減收는 不免할 狀況이며 養蠶業도 또 夏秋蠶의 直接被害、桑田被害도 大部分을 占하엿다 이 結果로 朝鮮內農村의 打擊은 豫想以上으로 深刻한 모양으로 農林局에서는 이 主要作物의 減收의 推移를 注視하고 잇다

長期貸付再利下

殖銀과 東拓에서
十月一日부터 實施

殖銀과 東拓에서는 今春 低金利에 順應하야 長期貸金에 豆하야 大幅의 利下를하야 産業開發에 資하얏는데 今春來金融情勢는 一般으로 依然 低金利의 實勢를 보이어 殖銀과 如한은 資金取入에 際하야서도 四分과 一厘優를 東拓과 如함도 四分一厘優를 各히 發行할수 잇게되엇고 一方朝鮮의 産業進展에 一層 拍車를 加하고저 先般來長期貸金에 亘하야 再利下를 하려고 兩者間에 協議中이든바 不動産貸 (銀行利率年七分)公共貸(銀行最低 年五分五厘)의 全般에 亘하야 三四厘의 利下를하기로 決定하고 今月三十一日 이를 公表하야 十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엇다

移出港在米

二十一萬六千石

全朝鮮主要港의 二十日現在의 在米高는 五十一萬六千七百三十六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一萬千九百九十六石增加 前月에 比하야 三十五萬六千九百三十二石이 減少되엇다 內譯은 如左하다 (單位石)

日本內地米	一、九〇九
正租	七六、六二八
玄米	四二二、六四九
白米	一九、六九七
臺灣米	三、八四三

重要商品界事情

朝鮮內의 紡織産額

一億突破?

朝鮮의 纖維工業은 紡織、人絹等의 大工場進出로 二三年來 躍進的으로 伸張하야 昭和十年의 工産額은 前年의 六千七百七十九萬一千圓의 二割一分、一千四百五十三萬六千圓을 激增하야 八千二百三十二萬七千圓에 達하엿는데 다시 今年에는 鐘紡、東紡、永登浦工場、各人絹製練工場의 本格的 操業이 잇서 十一年中에는 다시 一千八百萬乃至 二千萬圓의 激增이 期待되고 紡績工業의 工産額一億突破는 不遠하야 年內에 實現하리라고 豫想되게되엇다

米穀自管案

各道講習會

農林局에서는 米穀自治管理法의 趣旨徹底를 圖키爲하야 左의日程에 依하야 全朝鮮各道에서 講習會를 열기로되엇다

(京畿) 廿四日—廿八日 山澤審議室事務官 渡邊技手
(忠北) 廿八日—廿九日 姜農產

(忠南) 廿四日—廿五日 黑澤技手
(全北) 廿八日—廿九日 茨木技手
師長 井龍
(全南) 廿六日—廿七日 同上
(慶北) 廿五日—廿六日 福山屬
(黃海) 廿五日—廿六日 鈴木事務官 (忠南) 廿七日—廿八日 山澤事務官 毛利技手
(平南) 廿四日—廿五日 渡邊技手
(平北) 廿七日—廿八日 石坂技師 千葉屬
(江原) 廿五日—廿六日 黑澤技手
(咸南) 三十日福山屬、毛利技手
(咸北) 十月二日—三日 同上

小運送改善

朝鮮은 靜觀

鐵道省의 小運送改善計劃은 實施期에 드러가 省內에 小運送改善調査委員會를 設置하고 普及審議準備中인데 그改善案은 今議會에 提出되어 通過後 來春四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

그런데 朝鮮으로서는 小運送의 改善을 實行하야 日本內地보다 一步먼저 朝運을 設立한 關係上 日本內地改善後의 推移를 觀하야 二、三年間靜觀한後 態度를 決定하기로되엇다 한다

結局丸通을 冊資로 半官半民會社를 設立하기로 根本方針의 決定을 보는 模樣이다

朝運、中鮮運送買收

國運代表後任不補充

朝鮮運送의 死去後 傍系中鮮運送으로부터 買收하는데 에서 後任은 補充안하기로되엇다

朝鮮運送에서는 國際運輸專務更迭에 伴하야 同社代表取締役의 辭表를 提出하얏슴으로 그後任問題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調停의 結果 同社의 重役整理의 意味를 包含한 것이라 한다

朝運에서 中鮮運送買收는 近近이것을 買收하기로 決定하고 目下 準備中이라한다 中鮮運送은 資本金 三十萬圓인데 朝運에서 中鮮運送買收後는 同社의 增資를하게되엇다 한다

麥酒原料大麥

濟州島서 栽培

朝鮮麥酒、昭和麒麟의 兩社에서는 麥酒原料大麥의 朝鮮內栽培에 對하야 各道에 試驗中이든바 드되어 全南濟州島가 最適地라고 決定되어 十二年度부터 約百二十町步에 亘하야 麥酒用 大麥、朝麥種의 二種을 本格的으로 栽培하기로 決定하얏다

經濟界消息

○龍山金組龍浦支所設置 龍山金融組合龍浦支所設置의 認可를 申請中이든바 二十二日附로 總督府로부터 認可되엇다한다 그組合에서는 方今開設準備中이라고

○商工聯合會設組組織 京城商工組合聯合會設組問題에 伴한 新規會員의 申込은 二十五日까지로 되어잇는데 爲先七、八十組合程度에 미치리라고 보인다 京城府內의 組合數는 二百三十餘에 達한으로 爲先三分의 一만이 新規會員으로 될것이다 그리고 어加入會員數가 決定된後 來月上旬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役員選擧等을 決定하리라

取引停止 (九月二十一日)

▲米穀雜貨商 京畿道高陽郡知道面 士堂里二三五番地李應鎬 ▲京城府黃金町 林商店小林美之助 ▲洋靴店 京城府黃金町一二四番地李康燮

径洛寸鉄

期米가 限定되어서 떠러지는 양에 正米市勢도 大慘落 凶作에 米價低가 이러도 甚한가 ○

그래도 鮮白米市勢는 떠러질때 모르는체하는 白米가 期正米가 올를때는 덩다라 뛰니 까닭이 부른일。 ○

甚한때는 公設市場 白米는 市勢가 떠러저도 鮮白米만은 안떠러지니 이런것은 누가 바로잡아주것는지。

株式

低迷裡에 浮動

商況 【廿五日】

前場浮動 昨後場에 一波瀾을 보인 市勢는 今前場에는 東新百三十七圓十錢 朝新三十六圓九十錢 鐘新一百七十三圓十錢 日産八十圓六十錢으로 日中問題等에 警戒人氣가 濃化하야 民賣商狀을 示하는 同時에 比較的閑散裡에 市場은 氣迷浮動裡에 推移되엇다。

後場低迷 後場은 東百三十七圓九十錢 日産八十圓七十錢新三十六圓九十錢으로 寄付하엿스나 東新百三十五圓으로 低落하야 低迷타가 下支모양으로 別關과가리 止場하다

警戒人氣濃厚

賣叩餘地업스나

昨前場에 東新百三十四圓二十錢까지 賣叩하엿던것을 또다시 百三十七圓臺까지 끄집어 올리기는햇스나 혀엇서 買進할수도업는것은 日中關係念慮를 비롯한 周圍의 壓迫이잇기때문이다 元來 九月發會以後에 겨우한번小

日産株을 注目

日産株는 增稅案發表와함께 二重課稅라하야 恐怖를 느껴 率先 崩壞하엿는데 今朝에는 諸株가 活氣업는中에 日産만이 八十一圓丁에 回復하는等 强味를 보엿는데 이는 勿論 面으로는 割低訂正이라고 볼것이나 他面으로는 日産으로서도 增稅는 이미 警悟한바이라는 樂觀을 表示함이 아닐가? 아니 그것보다는 增稅案發表로 日産은「아쿠누케」 가되어 沈滯한 空氣로부터 漸次 解放될것이 아닌가 勿論 一般으로 對中問題의 憂慮와 綿業前途의 悲觀等 반드시 樂觀만 할수업는 材料가 업는바아니나 十分警戒가 必要하나 將來할 軍需工業을비롯한 이불레 景氣를 豫想한다면 日本産業界의 前途는오히려 洋洋한바가잇 다할것이다

共同漁業增資

【東京電話商通】日産系의 共同漁業은 現在 資本金四千二百萬圓을 九千萬圓으로 增資하기로되어 親會社인 日産이 當然引受할 新株는 十二月現在의 日産株主에對하야 左記의條件으로 優先的으로 配當하기로 決定하얏다

一、日産舊株一株半에 對하야 共同新株一株의比例
二、日産新株十株에 對하야 共同新株一株의比例

實物前場取引

▲日本石油 一四三、〇〇 ▲日滿亞麻 七〇、五〇 ▲大同產業 四七、〇〇 ▲大同電力 一〇五、〇〇 ▲京春鐵道 九〇、〇〇 ▲에라바이新 一〇九、〇〇 ▲滿洲煙草 一〇九、〇〇 ▲合同炭鑛 二五、五〇 ▲高崎板紙新 三五、〇〇 ▲사라이新 一〇、〇〇 ▲라사이業新 三〇、〇〇 取引高 三〇〇枚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商通】無記名有價證券에 對한 新稅制設問題에 關連하야 所持不安이 增大하야 連續的으로 投賣하엿는데 投物一巡으로 日本內地債는 모다 不

後場小戾

後場은 二十七圓二十六錢인 十丁高로 寄을 始한後 一節四十一錢으로 結局三十一錢에 止場하다

期米

恐怖投出

飛落

前場慘落 昨後場阪地三十九圓五十六錢止와 共히 二十七圓三十錢에 寄場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附 二十九圓五十二錢인 四丁反落을 하고 二十七圓三十五錢인 反히 五丁高로 寄한 後 阪地三十七錢의 最低를 始한後 戾入的으로 ○九錢까지 反落하엿다가 結局十六錢에 場을 止하다

當限百丁慘落

三期逐次瓦落

煎退物이 續出

日本內地의 天候는 期相的으로 良好하야 彼岸日氣도 되한 無事經過할 뜻을 一派 買方田中眞 下大勢에는 逆行하지못하고 警戒自重하는 모양이며 從하야 大勢順應의 賣物은 又一層 威力을 加하야 猛烈히 賣叩하는 光景으로 今朝 阪地當限은 三十一圓五十錢臺인 寶로一擧에 七十丁의 瓦落을 告하엿스며 當地도 阪地의 低落에

六感

⊕……如何히 底力이 센 市勢도 加重하는 周圍의 壓迫에는 어찌할수 업서 氣迷浮動 ▲이는 玉整理를 爲한 一息狀態라고 보는것이 오히려 適切할가 ▲「카렐案」이란 評이잇는 增稅案은 이미 잔을 비운셈이니 前途는 오직 明朗一字일가 ▲그러나 日中問題는 아직 依然 樂觀을 不許하는 狀態이니 警戒는 必要 ▲如何튼 七個月동안 가진 惡材料에 구밥을 當하고 鍛鍊해온 市勢이니 활개를한번 뻗쳐도 하다마는……

米……日復日 低落하는 市勢는 아직도 底止가 안될모양인 결 ▲當地先限 二十七圓○臺를 示한後 多少返戾하는 應이엇지 아니 하나 活鼻한 反撥을 示하지 못함을 보면 아직도 底值은 本意가 아닌 모양 ▲當地限買物은 漸次 損退하는 光景 ▲今前場으로서 約百丁이나 反落하엿스니 買方으로서의 큰 致命傷 ▲買方金太는 群山木浦로부터 實彈을 着着 整備中이라고 何如間 當限戰이 大壯觀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彼岸天候良好에 豊作氣分이 旺盛하야 新限價로 崩落되는때에 今朝에 買方嫌氣投物로 崩壞하야 米豊富說에 當限 買方의 雪辱戰은 何時에 展開? 買方側의 嫌氣로 限爛한 庭入도 不遠한것갓다 果然 面이 買偏傾으로 轉換되는 것을 보면 一大痛 損氣가 이러나 低落도 老境에 入한感이不無하야 萬石의 增收를 示하게될 것으로 아니하다 그러나 買偏傾이든 場 도 昨年의 兩地實收보다 四百餘 五百萬石으로 豫想한다 割지라 千五百萬石 日本內地米作 六千 昨年의 實收보다 五百萬石을 減한 收量

買方의 雪辱戰

何時에나 展開?

去六月에 三十二圓七十錢의 天井을 示한 當地市勢는 朝鮮凶作의 行動은 烏有에 歸하고 日本內地의 無類의 豊作으로 漸次 低落을 거듭하야 今朝二十七圓臺까지의 實로 五百六十餘丁의 瓦落으로 昨年同期의 低價를 下 廻하엿다 昨年은 今年과의 正 反對로 朝鮮은 比較的 良作이 엇스나 日本內地는 二年繼續의 凶作으로 二十七圓臺의 低價로 부터 勢騰하기 始作하엿고 今 年은 十一限이 二十九圓八十九 錢에 發會한後 因而慘落에 慘 落을 加하야 최신 以下의 瓦 落을 示할만한 形勢를 보이고 잇다 實로 今年은 朝鮮米作 一 千五百萬石 日本內地米作 六千

賣方의 雪辱戰은 何時에 展開될는지 中限은 約百丁의 慘落을 보고 先限亦是 約五十丁의 奔落을 示하고 中國은 反面 多少 止步하는 形勢를 보이는 바 實은 一時高勢不足을 受치 못하 그러다 하는 機賣 一時高勢不足을 受치 못하 가리는 機械的으로 三期中限 目의 高 價를 維持하여온바이나 그러나 納會期日이 迫頭함에 따라 買方主 力의 金太店으로부터 群山木 浦地方을 通하야 實彈을 着着 整備中이며 反面의 丸ウ店을 本 陣으로한·其主力側의 恐怖的投 物이 現出하는모양인데 中限은 當限의 慘落을 받고 先限은 中 限의 慘落을 바라 逐次瓦落을 告 하는 狀態이다

各地正米

京城大崩落

淸算期近의 大暴落에 刺戟되어 氣配 一圓三十錢의 崩落인데 取引은 皆無이 엇다

◉三等 二六、三〇 四等 二六、〇〇 一等白米 三二、五〇

仁川急奔落

淸算當限暴落에 人氣惡化하야 氣配는 昨日보다 一圓三十錢의 急奔落을 演하얏고 賣方은 拱手傍觀에 實賣는 全然업다 ◉三等 二六、三〇 四等 二六、〇〇 一等白米 三二、三〇

釜山少殘

淸算當限暴落에 對日本內地 沒交涉狀態가 되어 市勢는 十錢少殘이나 當用必需買는 比較的 繼續되고잇다 ◉三等 二

大邱續落

期米慘落에 人氣惡化하야 買聲은 全혀업다 唯獨市勢만 二十錢低唱이엇다 ◉三等 二六、七〇 四等 二六、四〇 一等白米 三二、〇五

群山暴落

定期의 갓업는 奔落에 現物市勢도 逐日低價로 崩落하야 今朝에는 一擧에 六十錢大暴落을 告하얏다 持米側도 幾分時價賣에 應할氣味이다 ◉三等 二九、一〇 四等 二九、〇〇 一等白米 三二、七〇

木浦引落

買方이 全혀자최를 감추어 賣買停頓狀態로 期 九、六〇 四等 二九、三〇 一等白米 三三、〇〇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圓)

	今日	前日比
仁川期米先限	二七·三〇	〇·三〇低
大阪期米先限	二九·五二	〇·二〇低
京城三等正米一石	二六·三〇	一·三〇低
正租(仁川)一等一叺	[illegible]	[illegible]
金 ◆市中金銀價 一匁	[illegible]	不變

◆株 (單位圓)

	今日	前日比
朝鮮新	三六·九〇	[illegible]
東新	一三七·一〇	[illegible]
日産	八〇·六〇	[illegible]
大阪棉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ゴムFAQ	[illegible]	不變

朝取期米取組

◆賣方 ◆買方 (figures [illegible])

方ノ地場筋 買方ノ地場筋

康益商會 米 株 仁川 京城 益 金益證券社

期米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金 銀 石金土金 賣買分析 金銀賣買會社 京城府南大門通一ノ九五 電話本局一三八〇番 振替京城一三四八〇番

○桑野取引所 仁川米豆取引所取引員 電話長六三九番

朝取引取員 アジア證券 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一ノ一 日生ビル

金融 廿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勢◆ ◆日本銀行勢◆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figures [illegible])

米 廿五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figures [illegible])

商品 廿五日

◆京城綿糸布市勢◆ ◆京城綿布◆ ◆鐵拌粕沖價◆ ◆豆油沖價◆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figures [illegible])

株式 廿五日

◆朝取短期賣買高◆ 合計六〇〇(株) 累計一〇五〇〇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朝取短期◆ ◆東定代引日步◆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figures [illegible])

期米 廿五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標準價◆ (figures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figures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圓)

地名	種類	一等	二等	三等	等外
京城	穀良都	八·五〇	八·四〇	八·二〇	—
仁川	銀坊主	八·五〇	八·四〇	八·二〇	—
大邱	穀良都	八·九〇	八·四〇	八·三〇	—
釜山	穀良都	九·〇〇	九·〇〇	八·七〇	—
群山	銀坊主	八·五〇	八·四〇	八·四〇	八·二〇
木浦	銀坊主	—	—	—	—
鎭南浦	陸羽	八·六〇	八·四〇	八·三〇	八·三〇
新義州	陸羽	八·六〇	八·四〇	八·二〇	—
元山	龜尾	九·〇〇	—	—	—
咸興	陸羽	九·〇〇	八·九〇	八·二〇	—
馬山	穀良都	八·七〇	八·七〇	八·八〇	—
平壤	陸羽	九·〇〇	九·〇〇	九·〇〇	—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시카고期麥◆ (figures [illegible])